

권두 인터뷰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기획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멈춤 없는 도전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VOL. **106**  
2020. 09+10

# 민중화해



## 02 편집인 칼럼

북의 자존심도 공감해야 한다 - 원희복

## 04 포토 에세이

콩밭 사이로 - 조천현

## 06 권두 인터뷰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 14 기획.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멈춤 없는 도전

1.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남북관계 자율성과 합의 이행능력 보여줘야 - 임을출

2. 제2기 통일외교안보 라인, '비핵평화 프로세스' 속도 내주길 - 박인휘

3.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가능할까? 전면적 군축으로 전쟁의 두려움부터 걷어내야 - 김정수

## 26 청년리포트

1. 제1차 독서토론 『고난과 웃음의 나라』 - 원준석

2. 제2차 독서토론 『시유 어게인 in 평양』 - 이은뜸

3. 제3차 독서토론 『우리에게 기억할 것이 있다』 김송현

## 32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좌절된 역사를 극복하고, 인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 염규현

## 36 이슈 앤 포커스

미 대선과 미중 경쟁, 우리의 국익과 생존 위한

초당적 논의 시작해야 - 정구연



14

06

CONTENTS



18



40 **기자의 눈**

남북관계 발전과 접경지역 개발의 만남 성사될까?  
- 박용한

44 **쟁점**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으로 - 정한범

48 **민족화해 네트워크**

54 **문화 모니터**

문화 속 통일미래 21  
국내산 가방 증산을 통한 '김일성 가계'의  
미래관과 후대관 강조 - 오택호

우표로 보는 남과 북 30  
남북의 전통 음악 ① - 이상현

영화 속 북한 이야기 10  
암 진단과 예방과 관련한 과학영화  
<자체 검사에 의한 암조기 진단>,  
<암성질환의 예방과 치료> - 전영선

64 **남북관계 새로 나온 책**

66 **작은 생각**

코로나 시대의 평화, 거리두기를 넘어서는  
연대와 소통 - 이현희

68 **편집부 이야기**

70 **민족화해 후원 현황**

72 **민화협 사서함**

QR코드만 스캔하면 민화협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족화해 E-Book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민화협 홈페이지



**COVER STORY**

2020년 남과 북 모두 고군분투 중이다. 코로나19 정국 속에 태풍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남북 모두 각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복구에 땀을 흘리고 있다. 이제 곧 다가올 추석에는 남북 모두에 작은 여유나마 생길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남북이 힘을 합쳐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각자'가 아닌 '운명 공동체'이다.



## 북의 자존심도 공감해야 한다

• 원희복 <민족화해> 편집인·전 <경향신문> 부국장

세상사가 그렇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인간관계를 비롯해 사회관계, 나아가 국제관계까지 그 시작은 상대와 감정의 공유다. 한 마디로 ‘공감해야 소통한다’다. 최소한 공감조차 못 하면서 서로 소통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이고, 어불성설이다. 여러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관계에서 공감은 한 쪽의 일방적 ‘동정’이나 ‘시혜’, 혹은 단기 이익을 위한 ‘투자’ 개념과 달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75주년 기념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생명과 안전 공동체라는 표현을 썼다. 생명과 안전은 인간에게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초다. 물론 이산가족상봉도 그렇다.

지난 6월 16일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참담하게 사

라졌다. 2년 전 감격스러운 9·19평양공동선언에 비추어 충격적이다. 이후 우리는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 등 이른바 ‘통일 외교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동안 이 참담한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따지고 검토했을 것이다. 그 결과 인도주의와 생명과 안전이라는 남북 공통분모를 찾아냈을 것이다.

정부와 경기도가 나름 성과를 낸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지만 아직 북의 공식 반응은 싸늘하다. 북은 최근 코로나19는 물론 큰물(홍수) 피해와 관련해 그 어떤 외부 지원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북측은 그동안 남측의 식량(유아식) 지원을 공개하는 것에 여러 번 난색을 드러냈다. 몇몇 사업을 언론에 보도되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북에 대한 지원이

나 교류협력 사업도 가진 자의 '시혜' 의지가 개입되면 안 된다는 점이다. '자존'은 북의 오랜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젊어진 북 김정은 지도체제에서 특히 강조됨을 간파해야 한다. 사실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상대의 자존심을 고려치 않는 공감은 '오만'이다.

따라서 새로 시도하는 남북교류 사업은 상대의 자존심을 살리는 사업이 가능성이 높다. 남북은 이미 2005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봉환사업, 최근까지 이어진 개성만월대 복원사업, 그리고 2018년 민화협이 추진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봉환사업 등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의 공통점은 역사 정의와 민족적 자존심을 찾는 일이다. 역사와 항일투쟁에 대해선 남북의 작은 인식 차이가 있지만 공감하는 분야가 매우 많다.

올해가 봉오동 청산리전투 100주년이다. 알다시피 봉오동 청산리 전투는 일제 강점 하 우리 민족이 무력으로 일제를 무찌른 최대 승전보다. 이 전투의 주역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을 지낸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최고 인물 중 한 분이고, 사회주의자로 북에서도 높게 평가하는 인물이다.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홍범도 장군은 평안북도 양덕 출신이다. 북은 이런 우리 정부의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에 반대하고 나섰다. 북의 <우리민족끼리>는 6월 23일 "유해가 그의 고향인 평양에 안치돼야 한다는 것은 북과 남은 물론 해외의 온 겨레가 한결같이 인정하는 것"이라며 "카자흐스탄 정부도 북과 남이 통일된 이후에 홍범도의 유해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사실 홍범도 장군도 자신을 토벌했던 간도특설대 출신과 나란히 국립현충원에 묻히길 원치 않을 것이다. 최근 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인사를 파묘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친일파가 득실한 이곳에서 독립운동

가들이 안식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2005년 남북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성공했다면 국립현충원이나 가묘가 있는 서울 효창공원에 모시는 것을 북측이 '공감'했을까. 안 의사 고향은 황해도 해주이다.

올봄 민화협이 추진한 독립운동가 유족 장학사업회 마무리 자리에서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홍범도 장군 묘소를 비무장지대(DMZ) 중앙에 안장하는 것이 남북화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허성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로 추진한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DMZ안 평화공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박근혜 정부도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미 경기도는 북측과 원칙적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민화협도 북측과 합의 하에 강제동원 영혼 72기를 봉환해 임시 안치하고 있다. 일제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도 DMZ 안에 '기억의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에서도 DMZ 안에 통일운동가를 모실 평화공원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듯 홍범도 장군의 DMZ 평화공원 안장 사업도 2005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봉환 사업, 일제강제징용자 유골봉환 사업처럼 남북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다. 이는 동정이나 시혜,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민족의 항일투쟁의 얼을 기리는 사업이다. 북에게도 자존심을 살리는 사업이기도 하다.

보훈처와 통일부, 외교부 그리고 경기도와 일제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 유가협 등을 아우르며 이 사업을 추진할 적격자는 바로 민화협이다. 무엇보다 새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걸출한 독립운동가 후손이기 때문이다. 남북 갈등현안을 서로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막힌 남북관계를 열 돌파구로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일'이다.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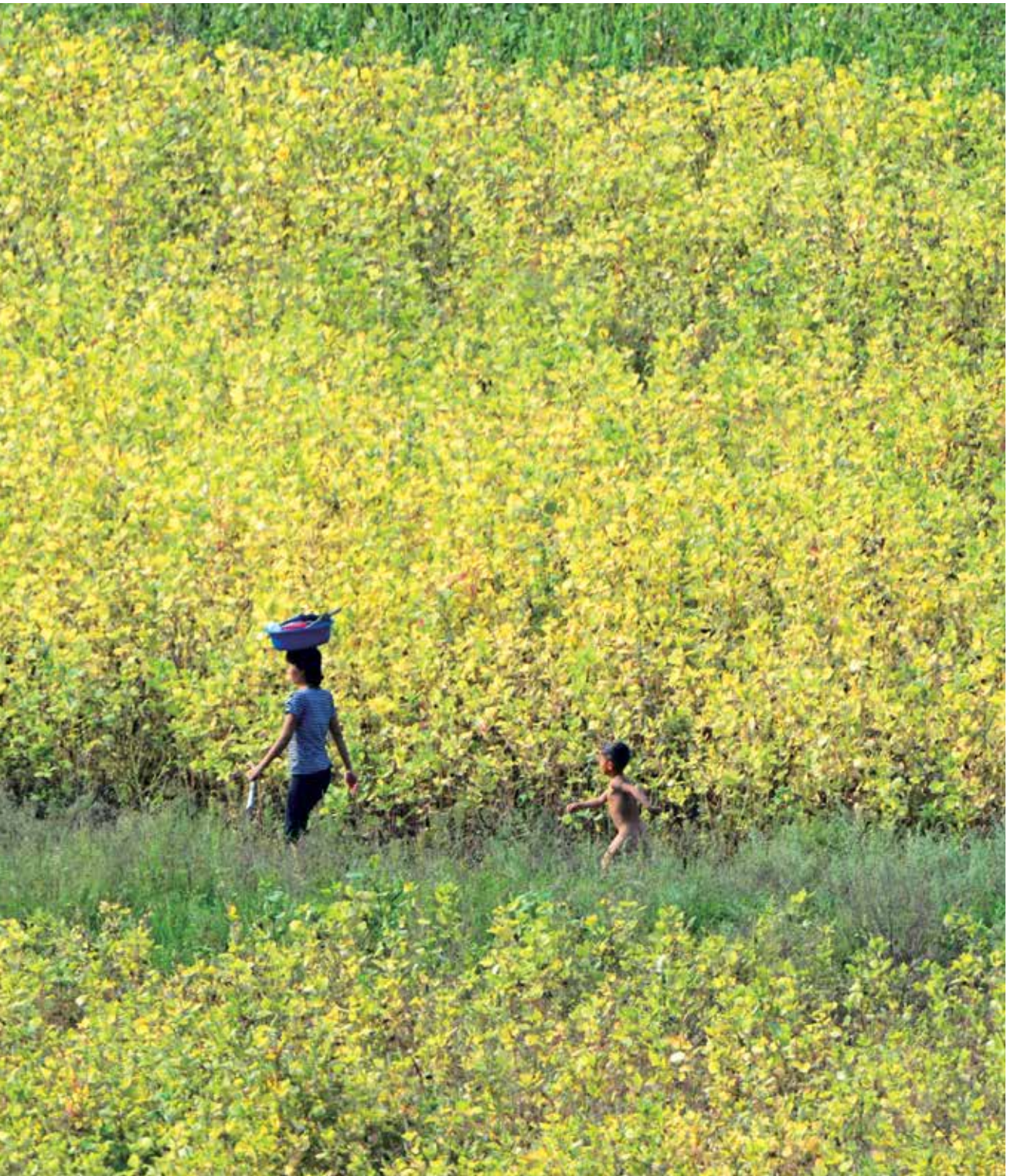
## 콩밭 사이로

빨래 소래를 이고 가는  
엄마 뒤를  
옷을 흘랑 벗은 아이가  
따라 갑니다.  
입고 나온 옷까지 빨았나 봅니다.  
아이는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누렇게 익어가는 콩도 사랑입니다.

조천현 PD

조천현은 조·중국경을 다니는 PD로 KBS  
일요스페셜 <현지르포, 두만강변 사람들>,  
SBS 스페셜 <5년의 기록, 압록강 이천리  
사람들> 등을 연출했다.





이  
종  
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진정한  
독립입니다!”





| 원희복(사회자) |

8월 6일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으로 취임했다.

| 이종걸 |

민화협은 아직도 분단시대를 극복하지 못한 우리 민족이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를 이루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민간 총괄기구라 알고 있다. 통일은 우리 역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고의 아젠다다. 제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국민을 믿고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 어깨가 무겁지만 아무진 소망을 가져본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단 극복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싶다. 통일을 이뤄 '포스트 민화협'을 연 국민 중 하나로 기억되고 싶다.

| 사회자 |

민화협은 22년 전 민간차원의 남북교류를 위해 보수와 혁신을 망라하는 200여 개 단체가 모여 출범했다. 향후 민화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 이종걸 |

민화협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개혁 진보 정권, 김대중 정부 첫해에 국민적 열망을 모아 창설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국 대한민국에서 민족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정권을 지지해준 국민이 직접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분단이 하나의 통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적 대의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이념으로 갈라졌던 분단 상태가 낳은 국가보안법 등 난관이 여전히 큰 덩어리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를 자연스럽게 직접 이겨낼 국민의 힘이 민간방식의 틀이라고 본다. 여기에 전국민적 명분은 보수와 진보가 망라된 국민에 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자, 5선 출신의 정치인이기도 한 이종걸 전 의원이 신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지난 8월 6일 취임한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은 민화협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평화'를 선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땅의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일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남북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남북교류협력과 '민족화해'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인터뷰는 8월 20일 민화협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 대담 원희복 <민족화해> 편집인, 전 <경향신문> 부국장
- 정리 추재훈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이종걸 약력**

1957.5.22.	서울 출생
1988.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2000.5~2020.6.	제16·17·18·19·20대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
2009.	제18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2012.5~2012.11.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5.5~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2015.12~2016.5.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하여 더 순도 높게 제공되었다. 범국민적 단체인 민화협은 진보에서 보수 정권으로, 다시 진보정권으로 넘어오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멈추지 않고 시민사회 중심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역사를 써왔다. 활동과 역할에 있어 진폭은 있었지만,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평화 통일 담론을 만들어 오는 데 주저한 적이 없었다.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 즉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산림협력,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북의 동질성을 넓힐 수 있는 사업, 남측의 표준어와 북측의 문화어를 공유하는 남북 어린이 작품 활동과 도서를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사회자 |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감격적인 평양 연설,

그리고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 올라 평화를 약속한 것이 바로 엇그제 같은데, 지금은 남북 정상이 합의하여 문을 열었던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참담하게 폭파되는 모습을 봐야만 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새로운 통일외교라인이 구성되었다. 이제 지금까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되었는지 그 원인을 냉철히 파악하고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 관계가 이처럼 어렵게 된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 보는가.

| 이종걸 |

2018년 4월 27일 남북 두 정상이 마주 앉았던 판문점회담 뒤에는 핵무기도 깨기 힘든 큼직한 한국산 화강암에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글과 두 정상의 서명이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졌다. 15만 북한 민중 앞에서 다짐한 우리끼리의 자주와 평화를 강조한 대통령 연설이 감동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남북 두 정상 내외분의 다짐 어린 백두산 등정은 “곧! 우리끼리 평화”라는 함성의 메시지로 세계에 타전되어 9·19군사합의라는 항구적 평화정착의 기틀로 뿌리 박혔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전쟁 위기까지 갔던 상황에서 탄생한 ‘4·27’, ‘9·19’이었기에 더 감격스러웠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 도널’ 이후 낙관의 프로세스는 사라지고 다시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갔다.

남북은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틀어졌는가. 그 원인과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를 돌이켜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4·27판문점선언과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10·4선언과는 어떤 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까. 4·27판문점선언은 단지 북핵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으로 인해 성사되었을까. 저는 4·27판문점선언이 간단없이 지속된 남북의 화해 협력 노력으로 이어졌던 6·15공동선언, 10·4선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론'에서 약간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자, 북핵문제가 앞서고 남북관계 개선이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신 바 있다. 핵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남북관계 개선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 남북관계는 상시적이고도 보편적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다시, 평화로 가는 길’에 민화협이 앞장설 것**

### | 사회자 |

혹자는 신냉전이라고 평가하는 미중 충돌 속에서 우리 입장이 쉽지 않다고 평가한다. 그 와중에 한미동맹의 재설정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중 간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전략과 정책이 남북관계에도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미동맹과 우리의 국방비 증액, 전략무기 도입 등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의 국가 대전략이 무엇인가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

### | 이종걸 |

눈치만으로 연명하는 입장, 줄타기외교로는 작금의 ‘트럼프표’ 신냉전체제의 격랑을 헤쳐나갈 수 없다. 과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보유 움직임에 대해 미국 부시 대통령은 2002년 신년 국정연설에서 ‘악의 축’ 3국으로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포함시켰다. 부시는 2009년 임기까지 극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의 움직임을 불러 넣었다. 중도적인 미국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 조차도 “2007년 물러나는 노무



현 대통령이 한국 내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추진한 대북 화해정책은 주요했다. 다만 한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정도까지 악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에 반해 후임 이명박 대통령은 노 대통령과 정반대로 한미동맹 복원에 올인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노선에 반하고, (한미관계가) 맹목적으로까지 가는 것은 국익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한국 내 해석이 우세해질 수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요소로서 다른 트랙일 뿐이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그 자체보다 북중동맹 또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의 변화와 연동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졌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시기에 북중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한미동맹의 집중은 강대국 간 긴장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사회자 |

북한이 장기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체제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늘 악마화, 혐오화 하기만 했을 뿐 현재 북한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길을 가려 하는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들이 남남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결국 북한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민화협은 많은 노력을 해왔다.

| 이종걸 |

북한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 등 서방 국가 주도로 오랜 기간 철저한 제재를 받아왔다. 사실상 자급자족 국가체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놓여 있다.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한 1993년 3월을 기준으로 해도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는 기간이 이미 30년이 되어간다. 그럼에도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발로 본격적인 중장거리 탄도탄 미사일용 핵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차 핵실험과 히로시마 원폭의 17배에 이르는 2017년 6차 핵실험의 연속적 실행, IRBM 미사일 발사 성공 등 핵미사일의 발사체, 고체연료, 소형화, 재진입기술 개발을 완료하였다. 이제 20~60개 정도의 핵을 가진 핵보유국이 되었다는데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최근에는 북한도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비용 부담과 남측보다 더 심각한 홍수, 태풍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전통적인 붕괴론에 의한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도 북한이 온전한 나라의 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집중적이고도 편중적인 핵 개발 투자와 대외적인 제재, 극심한 자연재해 등으로 내외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위



기상황에 빠져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같은 강력하고도 무기한적인 제재를 지속할 것인가. 일정시기를 기한으로 미국 정가에서 나돌던 소위 '군사적인 조치'를 전제한 제재를 다시 거론할 수 있을까. 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고, 유엔의 제재 수위를 고강도로 높인다고 해서, 북측의 지속적인 핵 개발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미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전략은 새롭게 변경되어야 한다. 북의 핵개발 여부나 정도는 남과 북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남북이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종전선언에서 국가연합의 단계까지 논의가 진전되었던 바를 기억한



다. 이때는 핵 능력을 동결하고 핵 프로그램 가동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갈등과 대립 양상으로 갈수록 북한의 핵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증가했고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그 경향은 상시화되었다.

남북 평화지향시기에 창립된 민화협은 민족의 화해 협력의 목표가 설정된 그 시기에는 물론 갈등의 시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민족이 상호 공존의 방법으로 평화, 그 평화를 유지하는 길로서 화해와 협력은 비록 전쟁 중에도 놓칠 수 없는 대의다. 민간기구로서 남측과 북측의 정부 단위의 관계를 보완하고 지원하는 성격이 중요했다. 또한 민화협은 보수와 진보, 정파와 종교를 초월하여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염원하는 기구들이 균형적 기반으로 남

북한 평화 미래를 안정적으로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의지로 나가는데 비록 더딘 점이 있더라도 민족이 모두 같이 한다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수단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동서남북의 단위별 경험을 반세기 동안 축적해 왔다고 생각한다.

## **전쟁과 갈등의 역사 뒤로 하고 평화와 화해의 역사로 돌아가자**

### | 사회자 |

민화협은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을 모셔오는 사업을 진행했고, 현재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남북이 모두 인정하는 우리의 역사를 주제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현재 꼭 막힌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 | 이종걸 |

일제 치하 우리의 항일운동 시기를 독립전쟁 시기라 부르고 있다. 이후 우리는 가슴 아픈 분단을 겪었고, 지금까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미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과거 대일 독립전쟁 시기 한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유산과 자산을 발굴하고 정리해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갈 이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때 우리는 독립을 위해 함께 싸웠다고, 그리고 다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독립전쟁 시기 남북 인구가 2천만 정도였는데, 일제로부터 죽음을 당한 피해자가 300만 명에 이른다. 대부분은 일제에 항거하다가 끌려가 죽었지만 지금까지 1만 7000여 분 정도만이 독립운동 서훈을 받았을 뿐이다. 수많은 분들의 이름도 행적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일본 등지의 해외에 집단적으로 묻혀 계신 분들 중에 남과 북의 후예로서 징병, 징용 피해자들이 있다. 이분들의 유골을 모셔오는 일은 민화협의 적절한 사업이었다

고 생각한다. 이후 남북의 뜻을 모아 이분들의 업적을 찾아내고 정당한 위치로 다시 모시는 일도 이어져야 한다.

| 사회자 |

과거 독립운동이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제 통일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기도 하다. 분단된 지금은 진정한 광복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다.

| 이종걸 |

항일 독립전쟁 1세대 선조들은 통일 광복을 꿈꾸었다. 2개의 조국으로 갈라진 지금과 같은 남북 분단 속의 일제 식민지 해제는 완전한 광복으로 보지 않았다.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임시헌장을 헌법으로 남겼다. 최초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임시헌장 제10조에서 국회마저 완전히 국권이 회복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구성한다고 했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중 나라의 권위가 일부에만 미치는 상태를 완전한 국권회복 상태로는 볼 수 없지 않은가.

해방 후 미 군정 시기 김구 선생이 법정에서 서신 일이 있었다. 당시 직업을 묻는 질문에 선생은 ‘나는 독립운동가이다’라고 답하셨다. 형식적인 광복은 있었지만,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맞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독립운동가라 밝히신 것이다. 분단을 극복하기 전에는 그분들이 처절하게 싸웠던 독립전쟁의 성과는 100% 달성된 것이 아니다.

저는 운 좋게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나 항일운동 정신을 어릴 적부터 가슴에 새길 수 있었다. 지난 아베 정부의 경제 압박에 맞서 우리 국민은 불매운동으로 대항했다.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을 하겠다’라는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동안 남북은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왔다. 진정한 광복은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 완성된다고 믿고 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저희 조부님이시다. 그 자부심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

| 사회자 |

취임 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났다. 민관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종걸 |

평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지켜내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 대한민국 통일부의 존재 이유다. 그런 측면에서 이인영 신임 통일부장관의 취임과 대통령의 의지를 100% 존중하고 환영한다.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맑은 바 서로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의 준비는 민족의 화해 협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저는 통일부라는 명칭도 민족화해협력부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한 적도 있는데, 민화협과 통일부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과제를 위해 한 몸처럼 힘을 모아나가면 현재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인영 장관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 없이 ‘밝은 미래’는  
가능치 않아**

| 사회자 |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다선 국회의원으로서 통일에 대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 이종걸 |

통일의 전제인 평화가 먼저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마음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백범은 자신의 평생 소원을 “하나도 독립이요, 둘도 독립

이요, 셋도 독립”이라 하셨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저에게 빛이자 빛인 조부님의 평생 목표이셨던 진정한 광복을 만들어내는 일일 것이다. 진정한 독립은 하나 된 조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저에겐 그것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다. 또한 앞으로도 남은 제 인생에 정치를 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그것을 위해 일할 것이다.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라는 자리는 그렇기에 저에게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한 무거운 자리일 수밖에 없다. 제 운명이라 생각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자 한다.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없이 어떻게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원래 하나였는데, 지금은 두 개의 조국 속에서, 분단된 조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사회자 |

마지막으로 민화협을 비롯해 180여 개 회원단체들과 함께 만들어내고 싶은 사업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 | 이종결 |

현재 민화협을 움직이고 있는 알토란 같은 사무처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한다. 이들은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오로지 ‘민족화해와 협력’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아울러 여러 상임의장, 공동의장, 집행임원들께서 함께 하고 있고, 많은 회원단체가 힘을 모아주시고 있다. 저는 이들의 마음을 모두 소중히 모아 이들의 염원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아주 잠시 멈춰있을 뿐이다. 현재 상황에서 하루빨리 자리를 박차고 다시 남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화협에 주어진 역

할을 다하고자 한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코로나로 인해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자칫 평화의 마음을 놓지 않도록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도 민화협의 역할이자 사명이다. 민족화해와 협력, 통일의 길에 이념의 잣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과거 독일도 보수와 진보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 나아갔기 때문에 비로소 통일의 문을 열 수 있었다. 민간차원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자 한다.

DMZ를 통한 1일 자유왕래, 개별 관광도 좋고, 대동강 맥주 축제와 같은 행사를 DMZ에서 남북이 만나 함께 가져도 좋을 것이다. DMZ라는 평화의 지대에서 정말 평화를 향한 우리가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다. 민주적인 토론의 장도 열고, 만민공동회 같은 자리도 민화협이 만들면 좋을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의 문화어와 우리의 표준어의 만남 이랄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둘의 차이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문화어는 김두봉이라는 큰 학자가 기초를 만들었고, 우리 표준어는 외솔 최현배 선생이 주도 하셨다. 두 분 모두 주시경 선생 문하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다. 문화어와 표준어가 하나 되는 교류,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와 초등학교 입학 전 우리 아이들이 봐야 할 고전들을 문화어와 표준어를 하나로 만든 언어로 제작해 선물하고 싶다. 읽기 대회나 관련한 행사들도 함께 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남북은 그동안 함께 겨레말큰사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과 성과도 함께 알리면 좋겠다. 남북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아 이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작업도 제가 민화협에 있을 때 시작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

#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멈춤 없는 도전

##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 남북관계 자율성과 합의 이행능력 보여줘야

•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부교수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을 비롯한 관련국 상호 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 법적·제도적 및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가 보장되어있는 상태를 뜻한다. 2018년은 남북한이 평화체제의 초석을 놓기 위해 달려온 한 해였다. 평화체제 구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 핵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북미 간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려 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답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비핵화를 실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해 우선은 남북 간 신뢰수준을 높이는 것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호응하지 않음에 따라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한의 신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는 최고 지도자 간의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이다. 지도자 간의 개인적, 인간적 신뢰를 돈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고 지도자와의 신뢰는 정치 군사적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라 할 수 있다. 과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10·4선언 등 최고 지도자 수준의 합의들이 도출되었지만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

### 블미스러운 역사의 반복

그 이유들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남북 간 상호존중과 신뢰의 부족과 정권교체 변수 등이 합의 불이행의 주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2018년에 성사된 4·27판문점정상회담과 9·10평양정상회담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당시 두 정상이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서 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합의 이행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속도”를 유독 강조했다. 11년 만에 만개한 “한반도의 봄”을 남과 북의 공조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을의 결실을 거두자는 포괄적 다짐이자, 1·2차 정상회담이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임기 중후반 열려 합의이행에 어려움을 겪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2018년 9월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삼지연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송하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연합

거나 실패한 선례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말에 늦게 합의가 이뤄져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는 결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비장감을 나타낸 바 있으며, 김 위원장 역시 “이제 마음 단단히 굳게 먹고 다시 원점으로 오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서처

럼 사장화된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자”며 결연함을 드러냈다. 한마디로 두 정상이 ‘역진 불가능한 합의이행’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남북 간의 공고한 신뢰 관계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이 두 정상이 우려한 바대로 불미스러운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약속한 9·19평양공동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은 65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및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데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 선언들에는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남북한 최고 지도자의 확고한 의지가 명문화되었다. 선언에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문제, 획기적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분야 등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애초 예상과는 달리 비핵화와 평화 정착 부분에서도 진전이 이뤄져 향후 대북제재가 완화된다면 폭넓은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졌다. 무엇보다 남과 북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만들었다. 특히 남북 간 직접적으로 비핵화 논의를 한 점은 이전의 남북관계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다. 북한은 이전에 핵 문제는 철저히 미국과 협의할 문제이지, 우리 측과 논의할 의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제 비핵화 이슈는 남북한 사이에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는 핵심 의제가 되었다. 북핵 문제는 북미 간 문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이슈는 자연스럽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가 명시되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5·1경기장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고 연설해 15만 평양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협력사업도 합의되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동력이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방면에 걸친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평화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신뢰와 함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적 교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비정치적인 민간교류가 정치 이념의 빗장을 풀었고 양측 국민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9·19평양공동선언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남북한은 철도도로연결 및 현대화사업, 산림협력, 보건의료협력, 체육교류, 예술단 교환공연, 이산가족상봉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었다.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했다. 연락사무소는 분야별 대화 체계의 전면 복원과 함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상시 협의의 틀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 꼭 필요한 장치였다.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남북한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모든 공간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조성 대책 강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데 합의했다. 2018년 10월부터 철원군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작업이 진행되었고, 11월 22일에는 철원 비무장지대(DMZ) 내 전술 도로가 연결됐다. DMZ 지역 내에서 남북 도로가 연결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65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해 12월 9일에는 모두 35일 동안 660km의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조사도 마쳤다. 2018년 연말 기준으로 '군사분야 합의서'에 명시된 7개 주요 합의 사안 중 5개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었다. 당시 남북한은 4·27판

문점 선언, 9·19평양공동선언의 차질 없는 이행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한국과 미국은 이에 상응하는 포괄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었다.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 유지로 인해 남북 간 교류협력이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남북한의 자율적 의지만으로도 추진하기가 용이했던 남북 간 군사적 합의이행이 평화체제 이행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남북관계 신뢰 회복부터 시작하자**

하지만 2019년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회담 결렬 이후 9·19평양공동선언 합의 이행은 거의 중단되었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사실상 멈추었다. 북한 당국은 하노이 회담 실패의 책임을 사실상 우리에게도 물었고, 남측 정부를 불신하게 된 북한은 대놓고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광복절과는 인연이 없는 망발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라는 조롱까지 덧붙였다. 북미협상 결렬의 여파로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재개되고 대북제재도 더욱 강화되는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상황을 돌파할 정치력과 외교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2020년 들어와서는 코로나19 펜데믹이라는 돌발변수가 등장하면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 붙게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의 차단, 초유의 개성 공동연락 사무소 폭파로 이어졌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 행동계획을 보류하면서 간신히 ‘숨 고르기’ 국면에 들

어섰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큰 틀에서 올 11월의 미국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 대미 대화, 대남 대화 재개 여부와 시점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진전과 변화는 그 여건과 조건이 만들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의 실익이 명확히 존재해야 하는데, 현 단계에서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대남 관계를 북미 관계와 연계해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난 2018년 때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이른바 ‘통남봉미’ 방식의 접근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정상 간 합의를 변함없이 이행하고, 당장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도 추진 가능한 코로나 방역물자 지원, 보건의료협력, 개별관광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회복의 계기를 모색하고 있는 듯하다. 남북 간 합의만 하고 이행을 하지 못하는 불미스러운 과거를 끝장내기 위해 우리는 남북관계의 자율성과 합의이행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내부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상당 수준의 자율성과 합의이행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 **WRITER**

임을출은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남북정상회담 민간자문단 위원, 통일부 남북대화분야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 2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멈춤 없는 도전

# 제2기 통일외교안보 라인, ‘비핵평화 프로세스’ 속도 내주길

•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후반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과거 정부들과 비교하여 대통령에 대한 정책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권력형 비리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임기 후반기라 할지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권력 핵심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는 주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비핵평화프로세스’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비교 불가한 특징들을 안고 있는 관계로 향후에도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한반도 문제를 관할하는 정책 책임자들의 인선을 통해 새로운 진용을 구축했고, 그 면면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임기 후반부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현재의 상황을 평가해 보자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되었던 협상 국면이 큰 위기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겠지만, 결정적으로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드러났듯이, 미국과 북한 모두는 두 나라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불신의 벽을 좀처럼

뛰어넘지 못했다. 여기에 2020년 상반기부터 노골화된 북한의 대남 비난에서 짐작하듯이,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실망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협상 모멘텀이 깨지지 않도록 조력자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으나, 어쨌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과 북한 및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 때이다.

### 다시 시험대에 오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시간 동안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 및 관련한 정책의 전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일단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고 독자 노력을 통한 국가발전 전략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과의 역사적인 협상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8년 4월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이라는 국가 비전을 제시한 바 있는데, 당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외관계의 변화라는 가변적 상황을 전제로 북한 스스로의



지난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임 국가정보원장·통일부 장관·경찰청장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연합

국가 정체성을 고스란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당 대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올 해는 2016년에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로서, 북한 스스로 경제개발 실패를 시인한 상황이다. 실패의 핵심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서, 내년 초 다시 제시될 경제발전계획은 내부 단결을 더욱 강조하면서 스스로의 힘을 통한 자강노력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 정부의 관여가 좀처럼 공간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미중 갈등은 우리 정부의 의지와 능력을 뛰어넘는 매우 부담스러운 외교 안보 환경이 아닐 수 없다.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전개되는 갈등 자체는 새로운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 와서는 두 개의 변수가 더욱 복잡하게 얽히면서 미중 갈등이 몰고 올 파장을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하나는 화웨이, 틱톡, 위챗 등의 이슈에서 보듯이, 글로벌 플랫폼 제공을 장악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점이다. 기존에 미중 사이에 전개되었던 특정 사안을 놓고 벌였던 '이슈 경쟁', 국제제도 장악을 위한

‘시스템 경쟁’과는 차원이 다르다. 최근의 갈등은 미국 혹은 중국이 제공하는 ‘기술표준’에 세계질서를 편입시키기 위한 경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과거 우리 정부들이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전략적 모호성’ 혹은 ‘안보와 경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분법’ 등과 같은 전략 유지가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놓고 보자면, 한 마디로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를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가질 것이다. 북한 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지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변수는 미중 갈등이 민감한 안보 이슈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홍콩보안법, 대만 문제, 남중국해 갈등, 중국-인도 국경 분쟁 등의 사안을 놓고서 미중은 서로 매우 첨예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이란 문제’와 ‘이스라엘-UAE 관계 정상화’가 얽혀있는 중동지역으로 넘어가면 미중 갈등은 브레이크 없는 최악의 수준으로 내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악화일로의 미중관계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은 11월의 미국 대선 결과,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중국 정서’가 중국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중국이 고려하는 여타의 주요 전략이슈들과 동일시 될 경우, 두 강대국이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자국의 이해관계 외에는 그 어떤 고려사항도 없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 북한의 독자노선과 미중 갈등의 악화

셋째, COVID-19로 인한 세계 및 우리 경제의 악화는 대북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여

의치 않은 상황이고, 세계 경제는 기록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 경제 상황이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처지이기는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특징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순간까지 경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통한 소위 ‘신한반도 구상’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거나, 혹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의 교류협력 정책 어젠다를 남한 경제의 부담으로 인식하여 정부 정책을 외면하게 되는 상황이 가능할 것이다.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떤 경우가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을 지 장담키는 어려우나,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일단은 전자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넷째, 최근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인물들에게 외교 안보 중책을 맡겼다.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정부의 투톱은 단연코 청와대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인데, 국정원장에서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서훈 실장과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정치인 출신의 박지원 국정원장이 증용되었다. 여기에 대북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실행 부처인 통일부에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학생운동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이인영 장관이 취임했다. 임명 시기를 고려할 때,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인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한 번 재시동을 걸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참고로 5·16군사정변 이후 1963년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어 자문회의의 성격으로 유지되다가, 김대중 정부 초기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처럼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사무처가 처음 생겨났고, 박용욱 전 국방차관이 초대 사무처장을 맡게 된다. 그러다가 2013년 북핵 문제의 악화로 인해 현재의 안보실로 출범하게 되었다. 청와대 업무를 총괄하는 비서실장,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정책실장과 합

계 안보실장은 '청와대 3실장 체제'의 일원이 된 것이다. 서훈 전 국정원장의 수평 이동은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한편 역시 1961년 군사정변 직후 사회 안정을 위하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최전선을 담당한다는 명목에서 출범했던 중앙정보부를 모태로 한 국정원은 더욱 투명한 운영과 과다한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박지원 전 의원은 초대 대외안보정보원장이 되는 셈이다.

신선함을 넘어서 '파격인사'라는 언론의 평가를 받았던 박지원 국정원장의 등장, 한미워킹 그룹이 '버전 2'로 거듭나야 한다는 과감한 이슈를 던지면서 지금까지의 통일부와는 달라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장관, 북한 문제에 관한 한 국내 최고의 지략가로 알려진 서훈 안보실장, 이 세 인물이 동시에 등장했다. 보수와 진보로 첨예하게 나뉘어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와 우려의 교차선이 깊을 것이다. 기대하는 측에서 보자면, '대동강 맥주'와 '남한의 쌀'을 물물교환해보자는 이 장관의 발언이 참신하게 들릴 것이다. 또 지금까지의 모든 남북정상회담에서 매번 우리 대통령을 깨알같이 도우며 산파역을 맡았던 서훈 원장, 그리고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정치인인 박지원 원장, 이 두 사람이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킬 평화의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우려하는 측에서 보자면, 북한 관련 정책에서 고유하게 발생하는 정보 독점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북한 문제의 경우 다른 분야의 정책과 달라서 정부 내 일부 사람만이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정보 독점과 비밀주의가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정부 인사들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자신들만의 해석을 통해 북한 문제에 접근한다면 '평화 프로세스'는 정도(正道)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 새로운 통일외교안보팀의 역할과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대내외 안보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문제인 정부의 남은 시간 동안 한반도 평화정착이 요원한 것만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사이의 평화정착'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비핵평화 프로세스'는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진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공감대를 확보한 상태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평화를 정착하겠다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정책 공조에만 치중한다고 불만이 쌓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정부 나름대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우리의 자율성과 국제공조체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다. 오히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의식을 강조한 나머지 2018년 이후 어렵게 찾아온 '협상의 시간'을 완전히 놓치지 않기 위한 문제인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문제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가 마지막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 역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노력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한반도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없는 초석을 만든다는 목표를 위해 배가(倍加)의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다. 🌊

### WRITER

박인휘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재)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 민화협 정책위원 등을 맡고 있다.

### 3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멈춤 없는 도전

#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가능할까? 전면적 군축으로 전쟁의 두려움부터 걷어내야

•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북한’ 언급 1회도 안 한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위의 인용구는 올해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의 대통령 메시지에 대한 한 언론 기사의 제목이다. 이 기사에 의하면 “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과거에 비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축소됐다. 2017년 취임 첫째 경축사에선 남북관계 관련 발언에 2,600자 이상을 할애했지만, 올해 경축사에선 1,000자 안팎에 불과했다. ‘남북’이라는 단어가 8차례 쓰였지만, ‘북한’이란 단어는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2017년 14회, 지난해 9회 ‘북한’을 언급했던 것과 비교된다.”(한국일보 8월 16일 기사 참조)

남북관계는 4·27판문점선언의 성과로 남북의 협의를 통해 설치된 개성남북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하고 그 영상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데서 알 수 있듯 거의 단절된 상태이고, 이를 남북의 신뢰가 깨진 상징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관계의 회복을 구상하는 것일까?

광복절 경축식 연설에서 대통령은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안보라는 차원에서 “남북이 공동조사와 착공식까지 진행한 철도 연결은 미래의 남북협력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핵심 동력”,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안

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실천하겠다”,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남북협력이 핵무기나 군사력보다 뛰어난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철도연결,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등을 통해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가



지난 8월 10~13일 캄보디아 시엔립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Korean Peninsula(한반도평화 국제회의)의 포스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제공



#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Korean Peninsula Peace

CO-HOSTED BY



10 - 13 AUGUST 2020  
7:00 PM - 10:00 PM  
(UTC+7)



SIEM REAP,  
CAMBODIA

and



ONLINE VIA ZOOM

BY INVITATION ONLY

능할까?”라는 이 글의 제목대로, 대통령의 구상이 과연 남북관계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필자가 보기에 깨어진 남북관계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요청되는 것은 판문점선언 2조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여 남북의 신뢰를 구축하라!

지난 8월 10~13일 4일간 캄보디아 시엔립에 위치한 Center for Peace and Conflict Studies(CPCS)에서 주관한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Korean Peninsula(한반도평화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특이했던 것은 코로나 19로 인해 나흘 동안 매일 3시간씩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국제회의를 CPCS,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GPPAC(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과 함께 북한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orea National Peace Committee, KNPC)'가 공동주최했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는 매일 50여 명 이상의 한반도 관련 글로벌 행위자들(유엔, EU, 미국, 독일, 중국, 몽골, 일본 등)이 참석하였다. 한국에서도 매일 7~8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 KNPC의 대표인사는 오룡일 상무위원으로 그는 북한판(시민) 공공외교를 펼치는 인사라 해도 무방하다. 그는 2015년의 'WOMEN CROSS DMZ' 행사의 북쪽 실무 책임자이고, 2015년 이래 그와 동료들은 KNPC를 대표하여 GPPAC 동북아위원회 연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필자도 지난해 8월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GPPAC 동북아위원회 회의(일명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 참석하여 그를 비롯하여 2명의 북측 참가자들과 3박 4일의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KNPC는 이번에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주최한 CPCS의 네트워크

를 통해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의 KNPC의 인사들은 코로나19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공동주최를 한 입장에서 기초연설문을 보내 CPCS의 엠마 레슬리(Emma Leslie) 사무총장이 대독했다. 북한의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오룡일 씨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해 북한에서 발신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인지, 이번 '한반도 평화 국제회의'는 한국의 평화통일 단체에서도 관심사였다.

그는 기초연설 외에 KNPC가 북측에서 제작한 동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현재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4ANoGW7HIEI#action=share>). 오룡일 씨는 어렸을 때는 몰랐던 일, 불구자가 된 숙모의 장애가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인한 것임을 담담하게 밝힌다. 그 영상에서 그가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은 제2의 한국전쟁은 남과 북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가공할 파괴를 가져올 것이기에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한반도 관련 글로벌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이 대거 참여한 이 국제회의를 통해 전쟁 반대를 목소리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공개한 것은 KNPC나 오룡일 씨 개인의 목소리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의 정상들이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이라 엄숙하게 선언하고 확약하는 역사적 사변...실질적이고 애국적인 장고에서 판문점선언, 9월 평양선언 이행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위 발언은 지난해 2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해외 새해맞이 공동행사' 중 부문 행사로 모인 '남북여성 상봉모임'에 참석한 북측대표단이 남측 여성들에게 한 말이다. 또 다른 북측 여성은 어린 딸이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일본군 '위안부'가 겪었던 것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

여 남북여성들 모두의 공감대를 이뤘다.

일련의 경험을 통해 필자가 느끼는 것은 북한사람들이 전쟁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 가장 확실하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판문점선언 2조에서 합의한 내용, 즉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 **전면적 군축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으로 남북관계 변화를!**

필자가 보기에 남과 북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에서 각자의 우선순위 혹은 방향이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안한 남북협력(철도 연결, 보건 의료 협력, 산림협력)은 사실 군사적 신뢰구축 위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판문점 선언 3조(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②항의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를 남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면적 군축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과도한 국방비나 고가의 무기도입을 줄이는 일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전면적 군축, 이것은 비단 북측과의 관계 개선뿐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 남한의 경제적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020년 올해 처음으로 국방비가 50조 원을 넘어섰

다. 놀라운 것은 통일부와 외교부의 예산을 합쳐도 5.5조 원 정도로 국방비의 약 1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중기국방계획(2012~2025)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약 300조 원 이상, 연평균 약 6.1%의 국방비를 증가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인간 안보 담론이 새롭게 공적 영역에서 거론된다. 대통령 역시 7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협력이 핵무기나 군사력보다 뛰어난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남북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남북협력을 통한 최고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전면적 군축을 시행할 때이다. 그것이 남북의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특히 북측의 사람들이 가공할 위험, 그 가능성에 대해 더 우려하는 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를 약속하고 그것이 잘 지켜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을 다시 읽어보면, 남북관계 발상의 전환을 위한 방법이 나와 있다.

“양 정상은…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양 정상은 민족주체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에서) 🌊

#### **WRITER**

김정수는 평화유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여성가족부, 통일부, 외교부, 경기도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현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민회협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제1차 독서토론 「고난과 웃음의 나라」

# 사회에서 교육으로 그리고 다시 사회로

• 원준석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 4년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은 지난 6월부터 총 3회에 걸쳐 <독서토론> 모임을 진행했다. 남북관계 및 북한, 그리고 평화와 인권에 대한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넓은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자는 취지였다. 코로나19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지금이지만, 민화협 기자단은 매회 토론마다 성실히 그리고 뜨겁게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각 독서토론에서 발표된 원고를 한 편씩 소개한다. 편집자주



### 혁명의 으뜸중자: 고아들의 아버지

만경대혁명학원은 항일 독립투쟁에 희생된 독립지사들이 남긴 고아들을 위한 초중등 과정의 기숙학교로, 해방 직후인 1947년 10월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김일성이 독립투쟁 과정에서 희생된 동지들의 아이를 직접 정치적 양자로 삼아 특별히 돌보고 교육하는 동시에 해방된 나라의 정통성을 항일 무장투쟁의 역사를 통해 다져나가는 의미도 지녔다. 혁명유자녀학교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성상 쿠바 등 공산권 국가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북한의 경우 특히 성공적이어서 북한이 '유격대국가'나 '가족국가'의 특성을 가진 사회로 진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군복을 입고 기숙 생활을 하면서 특별 교육을 받았고, 이러한 '혁명의 원종장'에서 고아들이 김일성을 양아버지로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희생된 독립투사의 자녀를 위한 학교와 스스로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준 수령, 더 나아가 수령을 모신 인민의 양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의미를 연결함으로써 역사적 상징성과 정통성 그리고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이 과정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혁명학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가족국가'로서의 북한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이역에서 자라는 아들딸: 입양의 정치

북한은 1952년부터 루마니아, 헝가리, 동독, 체코 등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롯한 중국, 몽골 등 해외로 전쟁고아들을 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의 교사, 장학사절단과 학교체계를 함께 보냄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조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김일성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리워하게 했다.

사회주의 인권개념의 전쟁고아 구호사업은 집단을

구호단위로 삼고, 사회관계와 조직 생활을 중시하는 혁명적 동지애를 바탕으로 한 집단적 구원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서방세계의 자본주의적 인권개념의 구호사업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난 전쟁고아들을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문화정체성과 자주적 해방의식을 지니며, 사회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하는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 초빙받았던 북한의 전쟁고아 대부분이 귀국하였고, 북한 사회 적응과 변화한 동구권의 사상으로 인해 사상 재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아버이 사랑수령'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존재가 되어 외교 및 통역,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전문가집단을 형성하였고, 북한이 국제적 고립과 위기 상황을 마주해나가는 와중에도 체제의 전복을 막아주는 평형수 역할을 해나갔다.

### 교수 아들은 교수로, 농부 아들은 농부로: 교육과 계급재생산

북한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부모와 자식 간 사회적 지위의 세습이 일어나고 있다. 운동선수, 예술가, 교예단원, 작가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세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령의 세습' 덕분에 덩달아 다양한 직종의 세습이 장려되고 권력 핵심부의 지위도 다르지 않다. 남한 사회가 자본주의 구조와 교육 및 학벌을 통한 경쟁을 통해 계층구조의 세습과 유지가 이루어진다면,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와 혁명을 표방하는 북한 사회도 역설적이지만 '직업의 귀천'이 없기에 오히려 그러한 세습이 정당화된다.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북한에서도 일명 "교육열성파" 엄마라고 불리는 자식 교육에 열정적인 부모가 존재하며, 이들에게도 남한의 학벌 사회와 입시경쟁 못지않은 치열한 경쟁사회가 존재한다.

### 북한 사회의 교육제도와 세습구조를 통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북한 사회의 교육은 북한체제와 지도자를 비롯한 나름의 독자적인 사회구조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의 후손을 정치적 양자로 삼고 특별교육을 시키면서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이들이 사회의 특권계층으로 성장함으로써 북한체제를 공고히 하고 수령은 '아버지'라는 이미지를 인민들에게 각인하였다. 즉, 북한 사회가 '유격대 국가', '가족국가'라는 다소 생소한 특성을 가진 사회가 된 역할의 중심에는 교육제도를 통한 북한의 독자적인 이데올로기 생산 및 정당성과 당위성 확보 그리고 이것의 전승을 통한 사회유지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에는 동구권에 전쟁고아들을 위탁교육 보내거나 일본 내 조선인학교를 세우는 등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도 그 정치적 영향력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북한이 철저한 계획과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가지고 북한 사회를 밖으로부터 안으로, 때로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형성해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25전쟁 이후, 남한과 북한 사회는 각각 나름의 독자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거듭해왔고 비슷하지만 형성 원리가 명확히 다른 남북한의 사회를 오늘날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흔히들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매체에 보도되면 동시에 북한 사회의 급격한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곤 하지만 해방 이후 북한 사회는 교육과 세습을 통해 나름의 공고하고 철저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수한 유기체를 이루었다.

분단 후 두 세대가 지난 지금, 우리는 각각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도달했고 이제는 공통점보다 서로의 차이점이 더 두드러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전과는 달라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화합과 통일을 위한 공동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제2차 독서토론 『시유 어게인 in 평양』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빨리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할 텐데요’

• 이요뜸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전문강사



“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상 전체를 촬영하는 것 외에  
신체 일부분의 근접 촬영은 철저히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주의를 주고,  
도착해서도 우리가 카메라를 들어 올릴 때마다 등 뒤에서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다.

”

지난 2018년 11월 민화협에서 다녀온 금강산에서도 주의사항은 똑같이 적용되었다. 금강산관광지구에는 동상 대신 내금강 호텔과 외금강 호텔 각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절대 사진으로 자르면 안 되는 인물들이 그림 속에 담겨있었다. 우리는 저 주의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더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 역이용하였다. 우리가 사진을 잘 못 찍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북쪽 사람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면 멋진 사진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 또한 마지막 돌아오는 길에 사진을 남기고자 호텔 직원분께 사진 촬영을 요청하였다. 호텔 입구부터 그림이 있는 곳까지 걸어서 2분

정도의 거리였지만, 전 일정에서 북한 사람과 단들이 동행은 처음이었기에 다녀오는 동안 굉장히 어색하고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사진을 촬영하고 돌아오는 길에 직원분이 먼저 건넨 한마디가 난생처음 가본 북에서 들은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빨리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할 텐데요”

그냥 별거 아닌 말로 던졌다고 생각하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한마디로 느껴졌기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던 순간이었다.

이 책을 쓴 트레이비스 제퍼슨은 자신이 유학 생활 동안 경험한 북의 모습을 평소에 자신이 공부한 역사적 배경 그리고 남과 북을 다니면서 얻은 지식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며 느낀 궁금증은 과연 저자가 가진 북 또는 한반도에 대한 생각의 기본 전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장시간 머물러 있었다고 하여 그가 보고 온 모든 것이 북한의 전부인가? 라는 것이다.

책 2장의 제목은 '세계 최악의 나라'이다. 어쩌면 저자도, 우리도 북한을 세계 최악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2장을 읽은 후 어쩌면 저자가 표현하는 세계 최악의 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분단의 과정에서 6·25전쟁을 일으킨 북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 과정에서 소련이 함께한 이유와 미국도 전쟁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도 설명하고 있지만, 황당하게도 지금까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남북한이 영구적 교전 상태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아직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은 것을 남북한만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심지어 외국인임에도 남북을 오가며 역사적인 사실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저자마저도 현재까지 영구적 교전 상태로 남아있는 한반도를 황당하게 생각하는 대목을 보았을 때 이 저자가 생각하는 한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책을 쓴 저자의 의도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두 번째로 그가 본 모든 것이 북의 전부인가? 라는 것이다. 2018년 11월 금강산 방문 당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가까운 거리에 가만히 서 있는 북한 군인이 갑자기 총을 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가장 먼저 다가왔다. 그렇지만 짧고도 긴 1박 2일 동안 함께 했던 북한 주민들과의 시간은 돌아오는 길에 많은 눈물을 흘렸을 만큼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남과 북이기 때문에, 북쪽 주민들도 우리에게 마음의 곁을 내

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주민들이 과연 짧게 유학 또는 사업을 위해 방문한 서양인들에게 얼마나 따뜻했을까? 대한민국 국적 외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곳이 북한이라고 해도 그들이 보고 느낀 것만으로 북한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드는 책이었다.

얼마 전 이 도서와 비슷하게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북한에 관한 책 중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을 인상 깊게 읽었는데, 이번에 다룬 <시-유 어게인 in 평양>을 읽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다.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은 북한만의 사회구조 또는 정권에 따른 변화 등등을 담백하게 소개하고 있어 정말 평양을 가보지 않았지만, 평양을 다녀온 기분이 들었던 반면, 이번 <시-유 어게인 in 평양>은 마치 한 사람의 영웅담을 보는 것과 같이 유학 생활 동안 북한에서 잘 지내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온 저자의 이야기를 보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국민 외의 사람들에게 더 폐쇄적이고 자유가 제한되는 곳이 북한이긴 하지만, 굳이 지속해서 월비어를 언급하며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느낀 북한을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 마치 영웅담처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적어도 우리만큼은) 북한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이와 함께 우리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에 대해 남들보다 더 안다고, 더 많이 공부했다고 자신을 마치 북한의 전부를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칭하는 청년들이 많다. 청년 대다수가 북한과 통일에 관심이 없기에 더 공부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더 잘 알고 이해가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가 배우고 경험해야 할 북한은 생각보다 깊고 넓다. 현재를 만족하며 안주하기보다는 더 배우고 성장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 책을 쓴 저자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낀 점이었다. 🌊



제3차 독서토론 『우리에게 기억할 것이 있다』

## ‘통일’과 ‘4·3’의 공통점

• 김승현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3년

역사가 없는 민족은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언제나 과거라는 그림자를 달고 살아간다. 경제 성장을 이루며 눈부시게 찬란했던 시기도, 우리의 열과 말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던 안타까운 시기도 모두 그림자가 되어 남아있다. 좋든 싫든 항상 우리를 따라다닐 역사라는 그림자를 잘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여러 가지 그림자 중 필자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이 많다. 6·25전쟁 이후 한반도는 분단국가가 되었다. 죄 없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서로를 죽고 죽이고, 선 하나를 그어두고 가족도 볼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을

남았다. 이 전쟁을 끝낼 방법이 필자는 ‘평화’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명료한 결론을 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은 없다. 오히려 이러한 불안정함이 필자에게는 롤리코스터를 타는 듯한 익스트림을 선사한다.

필자는 통일에서 평화로 관심을 옮기면서 4·3을 접했고 아래 그림이 그 관심을 증폭시켰다.

위 그림은 <박제된 4월>로 임춘배 제주대학교 교수의 작품이다. 필자는 작년 여름, 동아리 차원에서 답사



하던 중 4·3 평화기념공원을 방문하였다. 전시를 다 돌아보고 임 작가의 작품들을 돌아보고 다음 일정으로 가려던 찰나,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는 임 작가와 대면했다. 그렇게 우연히 그에게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캔버스 위에 삼베, 돌, 대나무, 동백꽃이 사용되었다. 각각의 소재들은 나름의 의미를 통해 4·3사건을 가리키고 있다. 수의에 사용하는 삼베는 4·3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을 의미한다. 돌은 이 작품에서 가공되지 않는 자연물이 4·3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뜻하는데, 임춘배 작가는 인간과 말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사건을 바라보기만 한 자연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빗대고 싶었다고 말했다. 대나무는 곧은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소재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갔던 제주인들의 모습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동백꽃은 작품의 주제인 4·3사건을 나타낸다. 동백의 추운 겨울에 피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모습을 강요백 화백이 제주도민의 핏자국에 빗대어 사용한 이후로 4·3의 상징이 되었다.


1시간가량의 4·3에 대한 박물관의 내용보다 임 작가와의 10분 인터뷰가 더 와닿았다. 그러면서 사회적 사건을 문화예술로 표현해내었을 때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덧붙여 이렇게도 아픈 역사가 아직도 사람들의 무관심 영역에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다.

이는 통일 문제가 가지는 문제와도 같았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는지도 잘 모른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에서 두 문제는 비주류라는 것이 첫째요, 해당 문제로 타격을 받

은 사람들에게 대한 피해 사실을 접할 기회가 적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다. 또, 혹여나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담론이 쌓여있지 않아 건강한 사회적 토론이 이뤄질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두 문제 모두 정치인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본래 문제를 기억하고 이를 통해 현대의 사람들이 배워가야 할 기회를 빼앗았다.

더욱더 문제가 변질하기 전에 우리는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문화예술'이라 말하고 싶다.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영위한다거나 예술 작품을 관람할 때 비교적 열린 사고로 대한다. 자연스럽게 작품을 접하고 이를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통일 문제이든 4·3이든 사회적 문제와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중들로부터의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선보일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점을 보유한다. 문화예술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가 접목되어야 탄생할 수 있는 이 결과물은 서로 다른 분야의 협업을 요구한다. 이 협업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해당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여러 사람의 생각이 더해지고 더해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한다.

임춘배 작가의 말처럼 4·3 사건을 이미 겪은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그 과거를 행복한 기억으로 바꿔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함께 기억해주고, 공감해주며 무거운 짐을 나눠 질 수는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처럼, 4·3도 통일도 다 함께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 

# “좌절된 역사를 극복하고, 인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아이고. 코로나19로 비상입니다.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과의 만남을 근간으로 하는 인권운동에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치명적이네요. 제가 몸담고 있는 ‘인권재단 사람’도 올해 초에 세워둔 모금 프로그램을 재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이겨내야죠!”

첫 인사부터 무거운 한숨이 내려갈렸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인권재단 사람’의 소장을 맡은 그에게 큰 난관이었다.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단체와 운동가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풀뿌리 모금을 통한 인권단체 재정지원과 지속가능한 인권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람 간의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인권운동에도 제동이 걸렸다.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인권단체들도 활동이 위축되었다.

그래도 가만히 멈춰서 있지만은 않았다. 5월에는 신입 인권활동가를 대상으로 ‘2020 인권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했다. 총 7차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에는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30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수료했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추진되는 <예술路> 프로젝트는 올해 가을 문화예술 관점에서 시민들과 인권 가치를 나누고자 준비하고 있다. 국난의 상황에서도 박래군 소장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 더 친근하게 인권 감수성을 대중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우리에게 기억할 것이 있다>의 출발도 그렇다.

## 근현대사 속 국가폭력의 기원

“거의 10년이 걸렸네요.(웃음) 2011년부터 이 책을 구상했으니까요. 6년 전에 본격적으로 집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4·16 세월호 참사부터 촛불혁명까지 우리 인권사에 아픔과 기쁨의 순간들이 연이으면서 이제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저지른 폭력과 범죄의 흔적들을 담았습니다.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은 개인과 특정집단에게 더 장기적으로 잔인하게 폭력을 저질렀고, 또 쉽게 정당화하고 은폐했죠”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인권운동 현장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인권운동가 박래군. '인권'이라는 가치를 실천한지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한국사회는 수많은 희생과 아픔을 되풀이하면서도 저항 정신으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갔다. 이제 그는 인권운동의 최전선에서 조금은 떨어져, '인권재단 사람'에서 인권활동가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한 올해, 박래군 소장은 <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 : 인권운동가 박래군의 한국현대사 인권기행>이란 책과 함께 다시 현장을 찾았다. 인터뷰는 2020년 8월 19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인권재단 사람' 사무처에서 진행했다.

- 대담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국장
- 정리 **김선규** 1020통일공감기자단
- 사진 **김성현** 사진작가

늦어진 일정만큼이나 그의 고민도 커진 것일까. 책 이곳저곳에는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다. 역사를 전공하지 않는 그였기에 역사의 현장을 글로 옮기는데 무척 큰 부담을 느꼈다. 한편 독자들에게 역사적인 현장을 소개하는데 자칫 무겁게 다가가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여행기다. 그런데 왜 우리 역사, 그중에서도 근현대사인 것일까.

“오늘날 우리 사회 여러 문제들은 근현대사에서 출발합니다. 인권운동을 하다보면 궁극적으로 분단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빨갱이’라는 이분법적 이념 잣대, 차별과 편견에 갇히게 되죠. 그 분단의 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인권구조나 지형의 근원을 추적하다보니, 제주 4·3항쟁과 6·25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일제강점기에서 이어진다는 것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근현대사를 배울 기회가 드물거나



##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인권의 내일을 위한  
든든한 어깨들

인권의 가치가 구석구석  
스며드는 아름다운 공동

든든한

인권의 흠을  
널리 뿌리기

인권재단 사람

인권재단 사람

인권재단 사람

인권재단 사람

인권재단 사람

인권재단 사람

없었죠. 학창시절 학교에서 배울 기회도 적었을 뿐더러, 역사 교과서에서도 근현대사 비중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 장점을 살려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근현대사 속 주요 현장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그에게 기억 남는 장소는 소록도다. 일제가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시킨 곳이다. 질병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국가적 격리는 유럽 제국주의를 표방한 일제가 그들의 방식을 본 따 만들었다. 나아가 강제노역, 고문, 성적학대, 학살 등 제국주의의 행태를 그대로 반영했다. 문제는 그것이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제가 저지른 무자비한 제국주의 행태는 우리 현대사까지 이어집니다. 일제 산하 기관에서 일하던 친일 부역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해방과 함께 일제의 만행도 같이 끝난 것처럼 왜곡했죠.

좌절된 친일청산은 곧 사회 취약계층을 향한 반인권적 행태로 이어집니다. 국가는 ‘사회부적응자’라는 낙인과 함께 일제가 행했던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소록도도 마찬가지죠. 소록도는 오늘날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원형입니다. 이번에는 국가폭력이란 틀에서 정리하다보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근현대사 속 우리 사회복지와 그 시설들을 자세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아쉬움이 남네요.”

### 좌절된 친일청산은 반공국가 완성으로

친일세력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덮기 위해서도 극단적인 반공주의로 나아간다. 제주 4·3항쟁과 6·25전쟁이 그 시작점이다. 올해 75주년을 맞이한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이 더욱 뜨거웠던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두고 반발한 세력을 보면서, 현재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뿌리가 친일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

립군을 토벌하고 고문하던 일제 부역 세력들은 제주 4·3항쟁과 6·25전쟁에서 민간인과 우리 동포들을 학살하면서 반공국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반공국가 완성이 대한민국 역사의 전통이라고 본다면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러니한 역사를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우리 전쟁기념관은 지나치게 대결적, 군사안보적 관점으로만 치우쳐 있다. 제주 4·3항쟁은 여전히 폭동으로 묘사되어 있고, 북한은 응징해야 하는 적으로만 그려져 있다. 남북 극단의 대결 결과인 6·25전쟁은 남북 모두 그들만의 승전역사로 다루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부터다.

“전쟁기념관은 전쟁의 잔혹함과 일상의 소중함, 평화 가치를 전달하는 곳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전쟁기념관이 만들어질 당시 군부 입장은 민주화 운동을 국가안보 위기로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시민들의 의식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쟁기념관은 그대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자라나는 세대들의 전쟁에 대한 인식과 배움입니다. 전투기, 탱크 등 전투무기들은 전시로만 그치지 않고 직접 만지고 기념사진을 찍게 함으로써, 전쟁을 마치 게임처럼 느끼도록 만들고 있죠. 과연 이러한 전시가 전쟁기념사업회법의 제정 취지인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잠시 멈춰선 한반도 평화의 길에서도 우리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주문했다. 당장 통일로 가지 않더라도 남북이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북이 갈라진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단번에 해결될 수 없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부침 없는 남북화해 사

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2018년 9·19군사합의 실천사항인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업은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2019년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오히려 남북 차원에서 전쟁으로 희생당한 원혼들을 추모하는 사업으로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유엔 대북제재와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는 과연 남북대치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했을까요. 사상 처음으로 올해 국방비 예산이 50조를 넘어서며 신무기 도입과 개발 등 남북 대치상황을 더 가중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외부 눈치만 보지 말고 우리의 강한의지로 실천해야 합니다.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신의를 쌓는다면 외부세력의 압력들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

코로나19 펜데믹은 전 세계의 이목을 대한민국으로 집중시켰다. ‘K-방역’이라고 불리며 유럽과 미국 등 소위 선진국들이 우리의 방역모델을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되고 있다. 우리 삶도 그만큼 향상되었을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심화된 양극화와 차별이 만연해있다.


“K-방역’이라는 세계적 호평 이면에는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실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민간 대형병원들은 코로나19 환자들을 외면하면서 몇 안 되는 공공병원들이 모두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더 취약했습니다. 올해 초 대구지역 감염자들이 급증하던 시기에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배제는 물론, 마스크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현장 방역 담당자와 의료진들의 헌신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코로나19 N차 대유행이 예고된 가운데 언제까지 그들에게만 헌신과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요. 코로나19 위기는 공공보건의료와 사회 복지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일부 극우 기독교와 정치세력들은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사회질서를 뒤흔드는 악법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 그렇게 법 제정이 미뤄진 13년 동안 우리 사회는 차별과 혐오가 점점 고착화되었다. 아니 더 심화되고 있다. 차별과 혐오가 규제되지 못한 채 만연하게 되면, 증오범죄와 집단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 특정 소수 집단을 향한 표적 범죄가 그렇다.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일제강점기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등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

“차별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성차별, 장애, 소수민족, 노동현장 등이 그렇죠. 차별금지법으로 가장 보호받는 사람들은 바로 노동자입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차별’과 관련된 진정사건 중 60% 이상이 고용 차별입니다. 직장에서의 갑질과 고용에서 남녀 차별,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등이죠. 차별금지법으로 특정 집단에게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자는 것입니다.

남북 분단 상황과 별개로 한국 사회는 전쟁터입니다. 연간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명을 상회하며,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와 산업현장 사망자 수는 각각 2천명이 넘습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의 존귀함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죠. 생명과 안전의 기저에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 출발은 이해와 배려 그리고 존중입니다. 그러한 태도라면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차별과 혐오가 없이,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7일(현지시각) 위스콘신주 오시코시를 방문해 대통령 재선을 위한 지지를 요청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ISSUE&amp;FOCUS

# 미 대선과 미중 경쟁, — 우리의 국익과 생존 위한 — 초당적 논의 시작해야

• 정구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혼돈 속 미국 대선 ]

전 세계가 COVID-19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사망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174,000여 명(2020. 8. 20. 기준)에 이르고 있어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책임한 리더십에 분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COVID-19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COVID-19 발원국 중국,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국제보건기구(WHO)를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해왔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을 고려한 정파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어 미국 국민들의 환멸을 자아내고 있는데, 예컨대 지난 3월 의회에서 통과된 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에 따라 이뤄진 주별 예산 배분이 전통적인 공화당 주에 더 많이 책정되기도 했다. 또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 사망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Black Lives Matter” 시위가 COVID-19를 확산시킨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자 미국 내에서는 거센 비난이 일었는데, 오히려 COVID-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시민들까지 시위에 가세하여 미 전역에서 최소 1,5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추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미국 시민들의 시위는 장기적으로 인종적 평등(racial equality)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 미국 유권자들의 대선에 대한 관심과 관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종문제와 더불어 미국 유권자들이 우선시하는 정책 현안은 역시 경제이다. 특히 경제 문제는 미중관계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데, COVID-19가 확산됨에 따라 미국 유권자들의 대중국 인식도 악화되고 있어 미중 간 탈동조화(decoupling) 조치를 정당화시키는 정치적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 유권자들은 미중관계에 있어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사이버 공격, 군사력, 인권문제, 기술경쟁, 홍콩 및 대만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sup>1</sup> 또한 미중 탈동조화 정책들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 간 이해가 공유되고 있는데,

<sup>1</sup> Kat Devlin et al, “US Views of China Increasingly Negative Amid Coronavirus Outbreak,” *Pew Research Center Global Attitude and Trend Report* (April 21, 2020).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D-NY),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D-CA) 모두 중국에 대해 강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D-VA)은 중국이 미국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sup> 이러한 정가의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이번 대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미중 양국 간 탈동조화는 지속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외교 스타일로 중국에 대응할 것이나 대중국 '경쟁'의 기초는 유지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sup>3</sup>

### 【미중 경쟁의 배경과 탈동조화 방향】

사실상 강대국 간의 경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세 세대의 많은 지점에서 목격되어왔다. 중요한 것은 미중 간의 탈동조화가 시도될 만큼의 강대국 경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이며, 또한 그러한 경쟁이 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일 것이다.

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GDP의 40%, 그리고 중산층이 점진적으로 늘어나 2030년경 23억 명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군사력 상위 7개국이 아시아 지역에 포진해 있으며, 역내 6개국은 자국이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역내에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역내 미군 350,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아시아 지역은 미국에 있어 가장 큰 시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략적 중요성을 띤다. 문제는 이와 같이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변경 행위가 심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미국의 국가이익과 미국이 운용해온 역내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sup>4</sup>

우선 안보영역에 있어 미중 양국은 오랜 시간 대만 문제,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미국 동맹체제, 핵 및 미사일 비확산, 해양영토분쟁 등의 현안을 다뤄왔다. 과거 양국은 이와 같은 현안들에 있어 위기가 고조될 시 안정적으로 지역 안보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해왔으나, 최근 중국은 이러한 현안들과 관련해 군사력 증강에 기반 한 무력사용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군 현대화는 미국의 역내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시뮬레이션 연구는 미 연합군은 중국과의 갈등에 있어 패배하는 시나리오도 존재한다는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sup>5</sup>

경제 영역에 있어 미중 갈등은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정책에 따라 중국 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불공정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진핑 정부의 산업고도화 전략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2015년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국제조 2025 (Made in China 2025)>에 따라 법, 규제, 행정 모든 영역에 있어 중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이며 불투명한 지원 조치가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미국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과 무역 분쟁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군수산업과 같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공급망(supply chain)에 관해서는 안보화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기술의 경우 가장 첨예하게 탈동조화 정책이 제시되는 영역으로서, 이는 경제와 군사안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 양국은 장기

2 Ryan Hass, "Why has China become such a big political issue?" *The Brookings* (November 15, 2019).

3 Don Lee and Tracy Wilkinson, "Why Biden Might Follow Trump's Hard-line Policy on China," *Los Angeles Times* (August 14, 2020).

4 Evan Medeiros, "The Changing Fundamentals of US-China Relations"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42, No.3(2020): 93-119.

5 Robert O. Work and Greg Grand, *Beating the Americans at Their Own Game: An Offset Strateg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ashington D.C.: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19).



적 기술혁신에 기여할 주요 기술, 예컨대 반도체,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 자율주행기계, 인공지능, 로봇, 5G, 차세대이동통신 기술, 바이오기술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향후 글로벌 경제와 국가안보, 생산성 등 모든 영역에서의 주도권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더욱이 경쟁 차원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러한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국내의 권위주의적 지배를 강화할 가능성, 또한 비민주주의 및 비시장경제적 중국모델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sup>6</sup>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 국무부가 최근 제시한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 정책 및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상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구상에 동참할 수 있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Trusted Partner)'로서 명명하며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중층적으로 구상할 계획이다.

물론 이러한 디커플링은 자유 국제주의 질서를 구성하던 열린 시장(open market), 자유무역 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의 수단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을 미국 스스로 이용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미중관계의 근본적 변화와 탈동조화의 추세를 고려한다면 기술영역 및 기술 공급망,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 차원의 양분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이러한 탈동조화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한다. 공급망 양분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선별과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경제·안보 아키텍처 간의 정합성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 [ 양자택일 아닌 이해관계 조화가 필요해 ]

미중 간 전방위적 경쟁과 탈동조화 추세는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安美經中)의 단순한 이분법적 헤징 전략을 취할 수 없게 됨을 보여준다. 또한 어느 한쪽의 편승(bandwagon)은 더욱 나쁜 선택지가 될 것이며, 미중 경쟁 속 사안별·영역별로 한국의 국가이익과 비전을 위치시켜야 하는 대외정책적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반도의 경우, 미중 양국이 탈동조화 과정 속에서 북한 문제를 양국 간 협력의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북한은 미중 탈동조화 과정 속에서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이 북미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남북관계 진전을 추동하려 한다면 미중 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탈동조화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미국이 안보, 경제, 기술영역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영역에서도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지난 8월 21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독재자의 비위를 맞춰주던 시대는 끝났다”고 천명한 바 있으며, 비핵화라는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달성하는 데 있어 남북관계 진전보다는 제재,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북미 간 실무협상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 문제에 관해서도 한국은 머지않아 또 다른 도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 경제, 안보 등 앞으로 장기화 될 전방위적 강대국 경쟁에서 한국은 생존과 안정,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초당적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

### WRITER

정구연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로스앤젤레스(UCL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sup>6</sup> Tarun Chabra, *The China Challenge, Democracy, and US Grand Strategy* (Washington D.C.: The Brookings, 2019).



# 남북관계 발전과 접경지역 개발의 만남 성사될까?

• 박용한 <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팀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취임한 뒤 남북교류 확대와 접경지역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효과는 금방 체감됐다.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무언가 이뤄진다'는 분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당장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열정은 냉정한 현실을 더 빨리 확인하는 기회도 됐다. 대북제재라는 엄중한 현실은 여러 마찰음을 만들었다. 한미 공조라는 틀에서도 남북한 문제가 갖는 구도적 현실도 일깨웠다. 또한 당장 호응하고 나와야 할 북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힘이 빠지기도 했다. “작은 걸음들을 하나하나 옮겨가고 있는데, 그래도 남북관계가 풀어지는 게 그렇게 녹록한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장관도 기대와 거리가 있는 현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취임 한 달째를 맞던 8월 26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이 장관이 취임 직후 야심 차게 던진 접경지역 개발과 남북교류 확대는 무엇인가. 어떤 난관을 만났고 앞으로 어떤 여정을 가게 될 것인지 살펴봤다.

## 취임 후 거침없는 한 달 행보

이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서부터 북한과의 대화 복원과 작은 교역을 언급하며 남북교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대북제재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며 민간교류도 강조했다. 취임 후 첫 외부일정도 접경지역인 강원도를 찾는 길이었다. 취임 나흘 만에 동해선 최북단 기차역인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을 찾았다. 여기에 위치한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금강산 개별관광을 언급하며 남북 교류협력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금강산관광 재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금강산 개별관광이 시작되면 분명하게 한반도 평화 메시지가 되고, 고성 등 접경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추진해 새로운 한반도 경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관 취임 후 첫 행보부터 남북교류 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목을 끌었다.

북한 관광은 2008년 금강산을 찾았던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됐다.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도 본격화돼 재개 기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관광 자체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대규모 단체 관광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런 이유로 개별관광 형태로 금강산 관광을 우선 재개한 뒤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월 18일 정부 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취임 후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

이 장관은 8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연속 토론회’ 축사에서 “북한 개별관광은 한반도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긴장과 단절의 공간이었던 접경지역도 경제가 숨통을 트고, 새로운 활력이 시작될 것”이라며 남북 평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2주 뒤 28일에 금강산기업협회 및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개별관광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빠르게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하고, 개별관광 형태로 금강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 평화와 접경지역 경제 두 마리 토끼 모두 노려

사실 통일부는 정부 차원에서 나선 접경지역 문제 해결에 힘을 더한 상황이다. 접경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역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게다가 군부대 이전 및 해체로 지역 경제 침체가 가중되고 인구 유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군사보호 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 접경지역은 역설적이게도 군부대 규모가 축소돼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 꾸준히 진행됐던 군구조 개편이 이번 정부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국방개혁은 성공하면서도 지역 경제에는 위기가 됐다. 강원도 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군 등 5개 주요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둔 장병은 10만 5000여 명인데 여기서 병사 2만 5900여 명이 줄어들게 됐다. 앞서 2018년 포천시 일동면은 육군 8사단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상가 매출이 반 토막 나는 타격을 입기도 했다.

정부도 손만 놓고 있던 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2020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2,160억 원을 투입해 지역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는 경기·강원 접경지역 15개 시군을 테마별로 묶어 광역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접경지역 문화·관광, 생태·환경, 보건·복지 등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생활권 단위의 협력 개발을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7월 19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접경지역 개발은 각종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다른 지방 도시의 반대도 예상돼 현실적으로 언제 멈춰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접경지역 민심을 다잡기 위해 정부는 광역 개발이라는 자구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런 제도적 장애물을 걷어 내기 위해 여당은 접경지역에 경제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말만 많았던 평화경제특별구역법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시켜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남북 교류 활성화 여건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7월 15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금강산관광 재개 등 현안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이 장관 취임 이후 지난 한 달 동안 통일부가 북한 개별관광 추진을 비롯한 접경지역 활성화 방안을 강조하자 지역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 경제특구 설치 및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통일부는 법령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8월 27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남북 경협을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북한 기업의 한국 내 영리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 기업의 북한 내 사무소 설치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대북

접촉 절차 간소화 방침은 일단 보류했다. 당초 허가 없이 북한 주민을 만날 수 있도록 단순 접촉 방식을 바꾸려 했으나 상황을 봐가며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바꿨다.

하지만 통일부의 법령 개정은 대북제재와 충돌할 우려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는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 및 투자를 금지한다. 외교부는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 합작으로 간주되거나 금융 거래 금지 규정 등을 어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 사무소 설치도 대북제재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추상적 법률만으로 제재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현행법에도 제재를 감안한 규정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추진하려던 안에서 일단 한발 물러선 데는 물물교환 등 사업 추진 중 발견한 대북제재로 제동이 걸린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북한 술 35종을 설탕 167톤과 물물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통일부도 해당 품목의 반출입 승인을 적극 검토했지만 무산됐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북한 노동당의 외화벌이 기관인 39호 실 소속임을 밝히면서다. 통일부는 “제재 위반 여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가능한 거래 방법을 찾아 나선다는 의미다.

## 대북제재 문제,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이 장관은 8월 18일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미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부분도 있지만 워킹그룹의 기능과 역할, 운영하는 과정들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며 ‘한미워킹그룹 2.0’ 시대를 열자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한 관계에서 워킹그룹이 장애를 조성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 장관은 “인도적 협력·교류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할 부분들이 많아 강화되어야 하고, 군사·안보 분야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 확대는 유엔사의 협조가 없이 강행하기 어렵다. 휴전선을 넘나드는 일은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 장관이 워킹그룹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꺼낸 건 단순히 대북제재 단 한 가지만을 생각한 것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남북한 자체의 교류가 활성화 되더라도 휴전선을 넘는 실행 단계부터 또 다른 압초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북한과 미국이 운신의 폭을 얼마나 보일지 알 수 없다.

지난 한 달간 가능한 수준의 것을 먼저 하겠다며 활기를 불어 넣은 대북 정책은 기대만큼 멀리 가지 못했다.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문제가 남북한 관계라는 한반도 차원의 큰 틀의 합의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을 확인했다. 또한, 남북한 관계가 북미 비핵화 대화 등 국제적 수준의 논의를 앞서가기 어렵다는 한계도 여전했다. 하지만 제자리에 멈춰 있던 것만도 아니다. 법령 마련 등 미래를 준비하기도 했다.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접경지역 개발은 어떤 여정을 걷게 될까. 🌈

### WRITER

박용한은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소와 군사기획연구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소에서 연구했다. 현재 <중앙일보> 국제외교안보팀 기자로 활동하며 세계지역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한미동맹으로

•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지난 8월 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8·15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전쟁은 인류의 역사와 늘 함께 해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쟁은 수많은 동맹을 형성하고 해체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국제정치학에서 최고의 고전으로 꼽히는 <펠로폰네소스전쟁사(기원전 431-404년)>에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동맹이 고대 그리스 지역의 패권을 놓고 겨루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역사에도 동맹의 모습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고대 동북아의 패권을 놓고 대륙의 남방세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방민족 간의 물고 물리는 동맹의 쟁탈전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근현대의 기록도 전쟁과 동맹의 역사이다.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이 그러했고, 이념대결의 현대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또한 그러했다. 결국, 동맹은 필요의 산물일 뿐, 그 자체로 신성한 동맹은 없다.

운명적으로 지정학적 불리함을 안고 있는 한반도의 역사는 끊임없이 강대국과의 동맹을 경험했다. 나당연합을 통해서 3국체제가 무너졌고, 조명연합을 통해서 임진왜란을 극복하기도 했다. 구한말 국권상실의 역사는 탐욕스러운 강대국들과의 관계설정 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었다. 강대국들과의 연합이나 동맹은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그저 잔인하고 억울한 역사의 교훈을 남겨주었다. 약소국과의 관계에서 그 어느 강대국도 순수하게 약소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지는 않았다. 강대국은 그들의 입장에서 약소국과의 관계를 해석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는다. 어느 동맹도 공짜는 없다.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복잡한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많은 외교 안보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한미동맹과 관련한 논란들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다. 아마도 지난 보수 정부 9년간 봉쇄되다시피한 남북관계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함께 급격히 복

원되면서, 북한 핵 문제와 분단의 정전체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잘 알다시피, 최근 몇 년간 시도되고 있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제는 북미관계의 해결이고 그 중심에는 미국의 결심과 태도가 있다.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가 외교안보현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글속진 한미동맹의 역사

이러한 이유로 한미 간에 현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만 특별히 나타난 현상처럼 호도하는 것은 다분히 음모적이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한국전쟁의 와중에 체결된 한미동맹이지만, 미국의 정책은 항상 한국에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잘 알다시피, 현재의 정전체제가 성립될 때부터 한국과 미국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휴전에 단호히 반대하였으나, 미국은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북한, 중국과 정전협정체결을 밀어붙였다. 이후에도 이승만이 북진통일을 줄기차게 주장하자 미국은 일명 '에버레디 작전(Operation Everready)'으로 불리는 이승만 제거 예비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박정희 정부 들어서 한국과 미국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박정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태도에서 미국과 사사건건 충돌하였다. 1968년 북한이 청와대를 습격하고, 푸에블로호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심하게 갈등하였다. 이후에도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미국과 겪었던 갈등에 대해서는 익히 알려진 바이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연변 폭격을 둘러싼 일화나, 박근혜 정부에서 겪었던 '사드갈등'도 빼놓을 수 없는 역사이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불가피하고 운명적으로 불리한

동맹의 환경에서 동맹 당사국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마치 부부가 싸움을 하듯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작권 전환'의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갈등은 이전 정부들에서 뿌려놓은 '원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알다시피, 한국전쟁의 와중에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이 이승만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이양된 작전통제권은 사실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환수해야 할 논란이 불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에서 처음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평시 작전권이 환수된 이후로 약 30여 년 만에 겨우 전시작전권 환수 자체에 대한 논란은 이제 거의 사그라든 것 같은 느낌이다. 오래 걸렸으나, 이제라도 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대강 이루어진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방위비 분담금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애초에 주한미군지위협정에는 없던 방위비분담협정이 1991년 이루어졌고, 트럼프 정부는 이마저도 무시한 채 사용처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연간 50억 달러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전작권 전환이나 방위비분담금 문제처럼 당면한 현안들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더욱 심각하고 근본적인 사안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정책'에 대한 양국 간의 입장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재균형 (Asia Rebalancing)' 이후로 향후 미국의 안보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중국의 부상을 설정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갔다. 이것은 미국 중심주의에 입각한 고립주의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미국은 호주, 일본, 인도와 연대하여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한국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환경은 미국의 요구를 무작정 들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최대 경제교역국이 중국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말기에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엄청난 경제보복을 경험한 한국의 입장에서 선불리 강대국들 간 갈등에 개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 '소극적 생존'에서 '실질적 평화'로

동맹의 목표는 당연히 국가의 안보이다. 자력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면 동맹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안보의 목표는 생존이었다. 이승만 정부도 한국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군통수권을 미국에 이양했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목표가 오늘날에도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 당시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현재 세계 경제 1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군사력도 편차는 있으나 7~8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목표는 '평화'이다. 우리 부모세대 희생 덕분에 이제 우리는 평화가 곧 국익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동맹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딜레마'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자율성-안보 교환 딜레마'이고 다른 하나는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이다.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안보를 얻기 위해서 자율성을 일정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동맹으로부터 버림받는 방기의 위협과 동맹 때문에 전쟁에 연루되는 위협을 둘 다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이 중간 어느 지점에서 두 가지 가치를 적절히 안배해야만 한다. 대개 약소국들의 입장에서는 안보를 위해서는 자율성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대국으로부터 유사시에 버림받는 방기의 두려움을 더 크게 가지게 된다.

한국의 경우도 동맹 초기의 관심사는 '생존'이었기 때문에 자율성이나 연루의 두려움보다는 '방기'의 두



려움에 '자율성'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전략을 구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체결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한국의 국력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환경도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한국의 국민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도 과거의 '소극적 생존'에서 '실질적 평화'로 바뀌었으며, 중국의 부상과 남북관계의 변화 등으로 국제환경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권과 존엄을 추구하지 않으려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력을 키우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미래지향적 동맹을 위한 과제

이제 한미동맹은 이러한 신장된 한국의 국력과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발전해야만 한다.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은 기본적으로 '안보'를 추구하되 신장된 국력만큼 '자율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력이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자율성'을 포기할 것이라면, 주권국가의 길을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국군이 중심이 되는 '미래지향적인 연합군'을 건설해야 한다. 한반도에서만큼은 한국군이 중심이 되고 미군이 이를 지원해주는 지속가능한 동맹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과정에서 한국이 주변국들과의 갈등에 '연루'되는 위험을 회피하도록 한미 양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동맹의 초기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의 '방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군 자체의 방위력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이제는 한국이 이루어 놓은 '한강의 기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의 갈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인정하든 않든, 미국은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동북아에서 막대한

전략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 미군은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이익을 거두고 있고, 한국은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역지력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은 충분히 '윈-윈'하고 있다. 이제 변화된 환경과 한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 한국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한국이 주변의 지정학적 위협에 연루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나아가 갈 때가 되었다. 그래야만 한국과 미국이 모두 승리하는 이익동맹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방위비분담 협상에서도 상식에 기초한 합의를 이루어야만 한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는 다른 어떤 동맹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미국 정부는 이점을 인정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초한 방위비분담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돈 몇 푼으로 평가되는 동맹이 아니다. 양국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의와 국익에 기초한 동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민들을 보호하는 동맹이 되어야 하겠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는 동맹이 되어야 할 것이다. 9·19군사합의와 같은 남북간의 신뢰구축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남북교류를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최근 북미회담 교착에 대한 북한의 불만 속에서 전작권전환을 위한 한미연합훈련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원활한 전작권전환을 위해서는 연합훈련이 필수적이거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연합훈련의 축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합훈련을 최소화해서 수행하되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전작권전환의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한미 양국 모두에게 필요한 때이다. 🌈

### WRITER

정한범은 미 캔터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국방대학교 교수 겸 국방정책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 NETWORK

## 1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제3특강 “한반도를 취재하고 평화를 보도하다”

• 김도희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고려대학교 북한학과 3년

기자는 글쓰기로 직무를 수행한다. 같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기자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무슨 문제를 주목하는지에 따라 기사가 달라진다. 기자에게 기사 작성은 노동이다. 동시에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통찰의 글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고자 한다.

지난 7월 17일 금요일 토즈 종로점에서 ‘한반도를 취재하고 평화를 보도하다’를 주제로 취재와 기사 작성 기초교육을 위한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제3특강이 열렸다. 신대원 헤럴드경제 정치부 차장은 현재 통일부 출입기자로서, ▲기자들이 생각하는 기자란 누구인가 ▲취재현장에서 바라본 남북관계 ▲낮은 신뢰를 받고 있는 우리 언론 등 폭넓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신 차장은 우리의 편파적인 언론 세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했다. 그는 “분단 때문인 것 같다. 분단 때문에 사람들 사고방식도 협소해졌다. 이념으로 갈리고, 세대로 갈리고, 계급으로 갈렸다. 분단사의 경험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기자 본연 업무인 기사 작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기사 작성에서 선택(내용)과 전달(형식)을 강조했다. 시의성, 근접성, 저명성, 영향성, 흥미성 등을 고려해 육하원칙 중 강조한 부분을 선택해야 글쓰기 방향이 정해지며, 그에 맞는 적절한 형식을 갖춰야 기사가 완성된다는 게 요지였다. 또한 <조선일보>와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 필사를 권했다. 언론이 사용하는 용어와 사실에 대한 접근방법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꾸준한 기사 쓰기를 독려했다. 신 기자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계속 쓰라”며 “기자 공부하는 것도 다른 공부랑 똑같다”고 전했다. 계속 반복해서 읽고 써야 자신만의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먼저 좋은 생각을 하고 나서 글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데, 글을 쓰면서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결국 기사 쓰기란 처음 떠오른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리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일이다. 즉, 정리는 글을 쓰기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써보면서 해나가는 작업인 것이다.

그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 과거 언론사 수습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과 수정안들을 가져와 보여주었다. 수습 기자들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으로 서호 통일부차관이 임명된 내용을 전달하는 기사들이었다. 이 기사를 통해 신 기자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육하원칙 강조하기를 설명했다. 예컨대, ‘전했다’는 인용 표현이기 때문에 당국자 공개 발언은 ‘밝혔다’, ‘말했다’라고 적어야 한다는 점, 내용 전달과 함께 기자의 해석을 넣고 싶다면 인터뷰이의 인용문 뒤에 적어야 한다는 점, 발화 내용 전달 시 ‘말했다’는 처음에만 쓰고, 이후에는 ‘했다’라고 써야 한다는 점 등이다.

민화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09+10



특강이 끝난 후 행사 참여자들은 북한 취재 경험, 인공지능 시대 언론 환경 변화, 기자 직업 선택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재호 기자(5기)는 “특강 덕분에 어디에 힘을 주고 기사를 써야 하는지 감을 잡았다”며 “의식적으로 글을 짧게 쓰고, 조사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고 말했다. 신 차장은 “언론인들에 대한 외부 평가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기자들은 공동체를 위한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인식이 강하다”며 “민화협 기자단 여러분들도 한반도 평화에 보탬이 되는 기사를 써 달라”고 격려했다.

“모든 기사와 편집은 정보이든, 의견이든 메시지 자체를 전달하거나, 메시지 전달을 통해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사와 편집의 형식, 내용을 선택한다.” 신 기자

가 강의에서 가장 강조한 내용이다. 소속과 직책이 어떤 기사를 작성해 독자들에게 담론을 펼쳐 보여야 할 기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이 기사 작성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에 변화와 자극을 주었으면 한다.

분단시대에 평화와 통일을 향해 취재하고 기사 쓰는 일, 북한에 대한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 남북관계에 대한 새 담론을 여는 일.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고, 더없이 소중한 일이다. 한반도 평화를 꿈꾸는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 앞으로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

# 2 민화협 제4차 회원단체 간담회 “최근 남북관계 정세와 시민사회의 역할”

• 편집부



지난 7월 17일 금요일 한국능률협회 비즈니스 스쿨에서 2020년 4차 민화협 회원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12개의 회원단체가 참여하여 ‘최근 남북관계 정세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최용환 실장은 2018년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급진전을 이루고, 지속적인 남북관계가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로 북한의 의지와 선택을 들었다. 한국 정부의 일관된 남북관계 개선 의지도 중요했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및 남북대화 관련 의지 표명이 한반도 상황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북한은 기존의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으로 전환하며,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미국과의 장기전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자력을 통한 제재 극복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의지를 전달하며, 판문점 및 평양선언의 이행을 촉구했다. 북한의 입장 정리 이후 중국, 러시아와의 연쇄적 정상 회담

개최를 통해 향후 신냉전 구도의 등장을 암시하기도 했다.

최 실장은 지난 2019년 10월 이루어진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미국은 협상의 지속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미국 대선을 위한 시간 끌기로 판단하여 결렬을 선언하였다고 평가했다. 이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삼지연-금강산-양덕온천 등을 순회하며, 관광산업 중심의 3대 핵심건설사업을 강조하며 구체화했다.

북한은 코로나19에 북한 영국대사관의 잠정폐쇄, 국경 검역 강화 등으로 대응하였고, 북중 국경차단에 따른 경제적 악화를 감수해야 했다. 최용환 실장은 2020년 3월 기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96%, 수입은 90% 감소하였음을 설명하며, 북중 물류차단이 대북제재 국면과 결합되어 부정적 효과의 발생을 추정하였다.

최용환 실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이를 위한 국민의 지지와 동의 확보를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는 가짜 뉴스 대응의 중요성을 전달하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관한 관심 제고를 당부했다. 

# 3 산림청·민화협 <남북산림협력 연구논문 공모 중간발표회> 남북산림협력의 미래를 위한 도전

• 편집부




지난 7월 24일 서울 홍릉에 위치한 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민화협과 산림청 주최로 '남북산림협력 연구논문 공모 중간 발표회'가 열렸다. 민화협과 산림청은 올해 4월 <남북산림협력 연구논문 공모 및 발표회 운영>에 관한 용역을 체결하고, 총 다섯 명의 연구자를 선발하여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발표회는 연구자들의 중간성과물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로서, 박경석 심사위원장(산림경영전략연구소 소장)을 포함해 총 다섯 명의 심사위원과 산림청 및 산림과학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자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는 박사연구자, 석사연구자, 석사과정연구자 순으로 진행됐으며, 각 발표 후에는 연구자와 전문가 간 자문이 이어졌다. 첫 번째 순서로 허선혜 박사(고려대학교 북한학)는 '김정은 시대 산림복구 전략과 남북산림협력 방향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허 박사가 탈북민과 전문가 심층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면담내용에 대한 신빙성 확보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팀원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문일 외 1인 박사팀은 행사 참석이 어려워 화상회의프로그램 줌(ZOOM)을 통

해 발표를 진행했다. 김문일 박사(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는 '고해상도 위성영상과 모델을 활용한 한반도 산림자원 정량화와 관리 및 남북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보다 정확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하라는 전문가 조언에 따라 추후 산림과학원과 협력하여 연구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어 석사연구팀인 김기대(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림자원학) 외 3인 팀은 '북한 산림재해 관련 연구 동향'에 관해 발표했고, 김서린 연구자(서울대 조경학)는 '북한 명산의 정치적 변용'에 대해 발표했다. 유일한 석사과정생인 문예찬 연구자(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는 '남북산림협력에서의 국제협력 도출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심사위원회는 연구자가 아직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닌 만큼 주제를 보다 좁혀서 연구하기를 조언했으며, 향후 진행해야 하는 연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주었다.

연구자들은 올해 9월 말까지 중간발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연구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10월 중 학술발표회를 통해 최종 연구 성과를 대중과 학계에 공유할 예정이다. 연구자들의 전체 연구 제목은 민화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2020 통일문화살롱 “분단 시대에서 평화 시대로 가는 현장에서”

- 김도희 1020통일공감기자단·고려대학교 북한학과 3년
- 송혜민 1020통일공감기자단·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년



7월 29일, 서울숲 신촌살롱에서 ‘2020 통일문화살롱’이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주최로 열렸다.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의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서울숲 신촌살롱에서 한겨레통일문화재단(이사장 문정인) 주최 제2회 ‘2020통일문화살롱’ 청년편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북한 문화 강연 및 공연을 통해 격의 없이 평화에 관한 생각을 나누는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로, 일일카페와 체험 전시 그리고 ‘북한학교 다녀왔다’와 ‘사회적 경제가 상상하는 대북 협력의 새로운 길’이라는 두 개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시장은 강연이 이루어지는 1층 아래 지하 공간에 있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North Korea Cuisine (북한음식)’이라는 제목 아래 ‘평양의 영국식 양조장’과 ‘북

한식 BBQ’를 포함한 사진 여섯 점이였다. 바로 맞은편에는 ‘Modern City of Pyongyang (평양 도시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여섯 점이 전시되어 있었다. 사진들은 예술작품 사진보다는 교과서에 실릴 법한 시각자료 같았다. 사진을 한 눈에 훑어보고는 옆에 놓인 북한 서적을 살펴봤다.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 등 다양한 북한 관련 간행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첫 번째 강연은 ‘북한학교 다녀왔다’라는 주제로 평양과학기술대학교(평양과기대) 설립 부총장이었던 정진호 교수(현 한동대 교수)와 실제로 평양 과학기술대학교를 다녔던 그의 아들 정문

영(23·캐나다 토론토대 4학년)씨가 참여했다. 평생을 청년들과 더불어 지낸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정 교수는 청년들이 모인 이 자리가 매우 반갑다고 했다.

## 나의 평양과기대 생활

정 교수는 “평양과기대를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라고 물으며 강연을 시작했다. “저는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독립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독립운동가의 길을 택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사명감을 가지고 평양과기대를 설립했다는 그는 설립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말로 다 하지 못한다고 했다. “누군가는 이 길을 뚫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당시 고3이었던 둘째 아들을 설득해서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막내 아들도 함께요”

평양과기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정문영 씨가 이어갔다. “평양과기대 입학 허가가 나기까지 40일이 걸렸어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동안 북한 학생들과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방과 후 운동을 하면서 친해졌어요” 이어 평양과기대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말했다. “모든 대화와 수업은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강의식 위주의 수업이었고, 미국 교과서를 사용했어요. 북한 학생들은 수업 몰입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질문도 많이 했어요”

“분단 세대의 마음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도 나름 분단의 아픔을 느꼈다고 생각해요” 두 학기를 보내기로 예정되어 있던 문영 씨는 고등학교 졸업 문제로 한 학기만을 보내고 갑작스럽게 북한을 떠나야 했다. 그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슴 한편에 지니면서도, 헤어진 친구들과 통일된 한반도에서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 남북교류협력의 新동력, 사회적 기업

이어 ‘사회적 경제가 상상하는 대북 협력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가 특강에 나섰다. “저는 사실 북

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만 여러분들께 북한에 대한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대북협력의 새로운 길은 ‘사회적 기업’이 이끌어 갑니다” 도현명 대표의 강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혁신에 있어서 중요하게 취급받는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북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건 한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도 대표는 말을 이어갔다. “몇 년 전, 해외 파트너 회사 대표에게 연락이 왔는데, ‘코리아 기업으로 내가 아는 한국 시장 상황과 다른 얘기를 하고, 영어도 잘 못해. 네가 도와줄래?’라는 부탁이었죠” 도 대표는 알았다고 했지만, 정작 ‘코리아’ 기업에게 연락 한 통 오지 않았다. ‘코리아’는 ‘노스 코리아(North Korea) 스타트업’이었다. 북한 기업들이 해외 인큐베이터를 찾고 있던 것이다.

그때 그는 ‘북한 현지기업을 우리가 인큐베이팅할 수는 없을 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부터 북한과 수교를 맺은 국가에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혹시 북한과 관련해 사업 소식 뭐 없어?”라고 물으며 북한 내 기업 동향을 파악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도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창업 등에 관심이 많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스타트업 기업가가 무려 2,600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도 대표는 본인이 접한 북한 기업 활동을 소개했다. “북한엔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한다는 건 야간에 소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길거리 노점상이나 외식 전문 회사는 프랜차이즈를 내고 있고, 콜택시랑 24시간 배송 서비스도 있어요. 심지어 스마트폰 앱서비스도 있죠” 그가 말한 사례들은 북한 시장이 어느 정도 구매력과 자생력을 갖춰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살롱’은 남녀, 신분 따위의 벽을 깬 작업장이었으며, 문학 공간, 시사토론장으로서 문화지성 산실과 증개소 역할을 했다. 살롱 문화는 남녀노소, 신분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분단시대인 오늘날 통일문화살롱이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행사 공간에는 민족화해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생각, 교양, 재치가 넘쳤다. 그곳은 분단시대가 평화시대로 전환되는 역사 현장이었다. 

문학 속 통일미래 21

# 국내산 가방 증산을 통한 ‘김일성 가계’의 미래관과 후대관 강조

- 주설웅의 「소나무」론

• 오태호 경희대학교 교수, 문학평론가





## 1.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의 강조

주철웅의 단편소설 「소나무」(『조선문학』, 2019. 5)는 2016년 제7차 당대회 이후 대북 제재의 지속 속에서 세계적 수준의 국내산 가방 증산을 통해 2010년대 이후 강조되고 있는 '5대 교양(위대성 교양,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신념 교양, 반제 계급 교양, 도덕 교양)' 중의 하나인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을 문학적으로 보여주는 '수령형상문학' 작품이다. 김정은은 이 작품에서 '미키마우스'로 추정되는 외국만화영화 그림이 새겨진 외국산 가방을 멘 소녀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학생용 책가방의 국내산 제품 생산력의 증대와 더불어 '민족적 자긍심'의 고양을 급선무임을 강조한다.

작품 속 시간적 배경은 2016~17년이며, 유엔의 대북 제재가 강력하게 지속되면서 체제의 고립을 넘어 서기 위해 '핵-경제' 병진 노선 속에 '〈광명성 4호〉 발사 성공(2016. 2)'과 '제7차 당대회(2016. 5)'를 전후한 시기에 아동용 가방의 생산력 강화 등 민생 경제의 지도를 관철하려는 움직임이 주목한 작품이다. 하지만 평양시 가방공장 건설 상무인 최성직의 손녀가 '깜장쥐 그림 가방'을 메고 등교했다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배타적 대감을 강화함으로써 체제 내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우리의 것을 써야 한다"를 최성직이 철칙으로 강조한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제재와 압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당위가 사적 욕망을 억누르는 공간이 북한 사회임을 보여준다.

## 2. <소나무> 가방의 증산 필요성

### • 외국산 가방과 애국심의 배치(背馳)

작품은 눈발이 날리는 날 평양시 교외에 승용차 한 대에서 서해위성발사장으로 가는 길에 김정은이 문건을 읽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눈 내리는 밤에 김정은은 '학생용 가방공장 건설' 문제로 평양시 책임 일군을 급히 부른다. 학생들의 배낭식 가방 문제는 부친인 '김정일의 유훈'이었기에 김정은의 심중에 남아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에 새로 꾸린 가방천 생산 공정을 돌아보기도 했으며, 그때는 형태와 색깔이 다양하고 '기능성, 편리성, 미학성 등' 모든 측면에서 외국 제품과 견줄 수 있는 질 좋은 가방에 기쁨을 느끼지만, 생산능력이 작은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그때 마침 김정은의 시선에 외국산 가방을 둘러멘 소학교 3~4학년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김정은은 그 여학생뿐만 아니라 "수도의 거리와 현지지도의 길에서 외국 그림이나 글자가 붙어있는 가방을 지고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심각한 마음'에 젖어 든다.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애국자로 키우는 것"이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아이들이 다른 나라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모습에서 민족적 자존심의 상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국 "자기의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에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 사업에 대한 김정은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 • ‘우리 것’이라는 원칙

이후 김정은은 야산 등성이에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보면서 “겨울이 와야 솔 푸른 줄 안다”는 속담을 떠올린다. 그리고는 생전에 김정일이 사랑하던 노래, 즉 “무성한 잎새우에 흰눈을 띄이고서 / 푸르러 설레이는 한그루 소나무여 / 세상이 변한대도 제모습 잃지 않을 / 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를 조용히 부르면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심야방송으로 이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었다는 김정일과의 대화를 회상한다. 김정은은 사람도 소나무처럼 강직해야 한다면서 소나무처럼 굳세고 강한 사람들의 나라가 강한 국가임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하여 연간 수만 개의 생산량이 적지 않은 양인 줄 알면서도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책동”으로 나라의 경제가 시련에 놓여 있어서 힘에 부치는 일감임을 인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내산 책가방 생산량의 부족 원인이 ‘외세의 탓’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경제 난관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성직은 손녀의 어머니가 교원인 가까운 학교 대신 일부러 의존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 먼 곳의 학교에 보낼 정도로 마음이 곧고 대가 바른 성품이다. 하지만 어제 손녀는 “가방 뒤에 붙어있는 외국만화영화에서 나오는 째장쥐그림 때문에 놀림을 받”아서 울면서 귀가한다. 친구들이 ‘생쥐’라고 놀려댄 것이다. 가방 매대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방이 그것뿐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사 왔던 제품임을 전하면서, 울고 있던 손녀에게 최성직은 ‘좋은 가방이 곧 쏟아져나올 것이니 조금만 참으라’고 말한다. “우리의 것”을 그토록 강조하던 자신이 손녀에게 “남의 것이라도 참고 견디며 쓰라고 설복을 한 것”인 셈이다. 결국 손녀 앞에서 한 생의 자량과 긍지로 여겼던 철칙을 허물어 버렸다는 자

괴감에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모멸감과 공허감이 몰려든다.

### • 후대를 위한 애국주의 실물 교양의 필요성

2016년 2월 <광명성-4호>가 “조국의 위상을 온 세상에 떨치며 만리대공으로 날아”오르면서 온 나라가 명절 분위기에 휩싸인다. 하지만 김정은은 연간 3만 개가 너무 적다면서 10배는 되어야 한다며 가방공장 설계를 다시 해야겠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김정은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강도제재, 압박속에서 난관과 시련을 정신력으로 타개해나가며 우리 조국이 전진하고 있었다.”라면서 ‘김일성의 미래관’에 대해 말하던 김정일의 모습을 떠올린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내각결정 제18호(1959. 3)’를 회고하며 ‘아이들을 키우는 일의 중대성’ 속에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후대들을 미래의 역군으로 키워야 할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김정은은 작년 겨울 지방 현지 지도에서 보았던 ‘들가방’을 들고 가던 아이들과, 시내에서 이따금 보이던 외국 글자나 그림이 붙은 가방을 지고 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애국심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님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리하여 김정은은 일군들에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미래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이들을 위한 일에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전대 수령들의 ‘위대한 미래관이자 후대관’이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은은 아이들을 위해 가방 공장을 번듯하게 세워주자면서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인쇄기와 레이저재단기’ 같은 설비들도 국가과학원에 의뢰하여 스스로 만들자고 제안한다. 자력갱생을 위해 “다른것보다 더 좋은 자기것을 안겨주면서 애국

주의 교양을 해야” 한다면서 ‘실물교양’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은의 제안과 지도가 진행된 이후 밤에도 가방공장 건설장이 돌아가게 된다.

#### • <소나무>표 책가방의 자부심

김정은은 평양 가방공장에서 생산한 배낭식 학생가방에 달아줄 상표들을 검토한다. “금싸라기를 골라 내듯이 무연한 언어밭에서 찾아내어 내려보내”준 이름들을 떠올리며, “시련과 난관을 뚫고 헤치며 견인불발”하는 것을 자본주의 세계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날쳐도 사회주의 강국을 기어이 건설하”려는 김정은의 의지를 흔들 수 없다면 2017년이 되어 지난해(2016)에 당 제7차 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점과 북부지역 피해복구 사실을 상기한다. 이후 김정은은 “희망의 등대처럼 푸르른 소나무여”라는 노래 구절을 부르면서 가방 상표를 선택한다. ‘소나무’가 “우리나라의 국수(國樹)”이기에 여러 도안 중 <소나무> 상표를 최종적으로 낙점한 것이다.

작품 마무리에는 첫눈이 내리면서 최성직의 손녀인 옥이와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는 풍경이 이어지고 성직이 금속으로 된 <소나무> 상표가 반짝이는 가방을 보면서 김정은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예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리고 성직이 <소나무> 상표를 보면서 “태양이 안기여준 푸르른 그 기상을 / 곳곳이 보여주는 역세인 소나무여”라는 노래를 떠올리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이렇듯 이 작품은 ‘국내산 증산’과 ‘국산품 애용’이라는 애국주의적 관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외국산과 국내산을 이분법적 시각으로 구획하면서 외국산보다 나은 국내산 제품의 사용이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3. ‘고강도 제재’를 넘어서려는 자력갱생의 강조

주설용의 「소나무」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강조했던 미래관과 후대관을 계승하면서 국내산 <소나무> 책가방을 증산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과 애국심을 고양하는 방법에 해당한다는 작품의 종자를 명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하지만 외세의 압박과 난관을 전제로 국수주의적 애국을 강조하는 태도는 역설적이게도 외부의 제재 속에서 북한 인민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동요하는 인민들의 내면을 다잡기 위해 ‘국내산 책가방의 증산’으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전유하고 있는 것이다.

2018~19년 두 해 동안 붙었던 남북의 훈풍과 북미 간의 대화적 관계는 2020년 들어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는 북한에 의해 좌절된 양상으로 드러난다. 더욱이 2020년 6월 16일에 벌어졌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 장면은 남북 관계의 악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미 대화의 복원을 위해서도 남북 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리길 기대한다. 그것이 실질적인 ‘한반도의 자력갱생’을 도모하는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WRITER

오테호는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에 당선되었다. 평론집으로 『오래된 서사』, 『여백의 시학』, 『환상통을 앓다』, 『허공의 지도』 등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표로 보는 남과 북 30

## 남북의 전통 음악 ①

• 이상현 민화협 체육교류위원

2020년 8월 7일 국립국악박물관 3층에 국내 최초의 북한음악 전문 자료실이 생겨났다. 국립국악원은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음악을 연구하기 시작,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으로 인가받아 본격적인 연구를 이어온 데 이어, 일반 시민들에게도 북한전통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산하기관인 국립국악박물관 한쪽에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가 중요무형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는 서도소리의 고향이 평안도와 황해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전통음악에 대한 연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나, 그동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았다. 이제부터 많은 학자들과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우표는 국가적으로 자랑할 만한 소재들을 담은 중요한 홍보수단이다. 따라서 우표에 담긴 음악적 요소들은 정부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대상들이었다. 즉, 음악사적 가치를 물론, 우표 발행 당시의 전통음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전통음악 우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표 속 우리 전통음악의 모습을 살펴보자. 남과 북은 1960년대 악기시리즈 우표를 발행했다. 이 시대 우표들은 남과 북 악기들의 모습이 유사하다. 그리고 북한 우표 속

악기들도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정부 수립 이후 남측은 전통의 계승과 보전에 방점을 두었다면, 북측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궁중음악, 정악 보다는 민속음악에 대한 연구와 보급에 집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에서 1963년에 발행한 조선민족악기 우표 중 궁중음악에 주로 사용되는 편경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오랜 전통의 궁중음악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남측에서 같은 해에 발행한 우표 속에서도 똑같이 편경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음악적 차이의 분화가 아직까지는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음 연재 편에는 계속해서 이후 발행된 남북의 전통음악 우표들을 통해, 음악적 흐름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

### WRITER

이상현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장과 전국총학생회연합인 학생연대 21 의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과 민화협 체육교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평양의 조선우표사를 방문하기도 했던 우표수집가로서 우표를 통해 남과 북의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남북 우표 교류에 대한 공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NORTH KOREA



1. 가야금 (10전) / 1962.02.02
2. 짓대 (10전) / 1962.02.02
3. 와공후 (10전) / 1962.02.02
4. 새남 (10전) / 1963.09.13
5. 편경 (5전) / 1963.09.13

REPUBLIC OF KOREA

1. 가얏고 (4원) / 1963.12.17
  2. 와공후 (4원)
  3. 태평소 (4원)
  4. 대금 (4원)
  5. 편경 (4원)
- ※ 남측 우표는 5종 모두 발행일이 같습니다.





영화 속 북한 이야기 10

## 암 진단과 예방과 관련한 과학영화 <자체 검사에 의한 암조기 진단>, <암성질병의 예방과 치료>

•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암은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의 질병이다. 평균 수명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암은 남녀를 불문하고 사망 원인 1위의 질병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령 인구가 증가하였고, 각종 환경 오염, 식생활 및 생활환경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근대화 이후에 삶의 환경이 개선되면서, 전근대적인 질병은 많이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암 발생률은 높아졌다. 북한의 과학영화 <자체 검사에 의한 암조기 진단>, <암성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암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고, 예방과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학영화이다.



**‘오줌모노히도록시페놀대사물검사시약’으로  
3분이면 암 진단(?)  
과학영화 <자체 검사에 의한 암조기 진단>**

과학영화 <자체 검사에 의한 암조기 진단>은 2017년에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14분 길이의 과학영화로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학영화이다. 영화는 암의 발생 원인과 전이과정, 암의 발견과 검사 시약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암은 ‘암세포개시기’를 거쳐 ‘암조기’, ‘암중기’, ‘암말기’의 네 단계를 거치게 된다. 세포 내 조절기구가 파괴되면 암 유전자가 발작하여 변이된 암세포가 생겨난다. 개시기에는 대부분의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 소멸되는 것과 달리 일부 암세포가 살아남아서 암세포 활동을 시작한다. 이때가 암세포 개시기이다. 이후 점차 암세포가 세포분열을 하면서 1억 개 정도에 이르면 1g정도가 되는데 이때가 암조기이다. 암조기 단계에서 대체로 3~6개월에 이르면서 암중기에 이르게 되고, 다시 암말기에 이르게 된다.

암은 초기 단계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암조기 단계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이 발전한 오늘날에는 조기 진단이 가능해졌다. 의학자들은 3분이면 암진단이 가능한 검사 시약을 개발하였다.

검사 시약은 사람들의 소변을 검사하여 암의 발생을 진단할 수 있다. 암세포가 활동을 시작하면 모노히도록시페놀을 배출하는데, 이 모노히도록시페놀을 진단시약으로 검사하는 것이다. 아침 첫 소변 3g을 채취하여 검시약을 넣고, 20도 정도에서 3분 정도 지난 다음에 색의 변화를 통해서 암을 진단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암을 두려워하면서, 검사 자체를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조기에 검사를 하면서 치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과학영화 <자체 검사에 의한 암조기 진단>

이 ‘오줌모노히도룩시페놀대사물검사시약’으로는 3ml의 오줌으로 3분 동안에 검사를 진행하여, 웬만한 진단 방법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암 발생의 초기 단계, 즉 암세포개시기 때 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유기체의 면역기능이 떨어진 40대 후반기의 남성과 위암, 폐암 등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 자궁암, 유선암이 있는 40대 후반 여성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진단 시약은 휴대하고 다니면서 혈압이나 혈당 검사를 하듯이 편리한 시간에 검사할 수 있으며, 암세포 잔여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개발된 암 진단 시약 중에서는 가장 우수한 검사 시약이라고 한다.

과학영화 <자체 검사에 의한 암조기 진단>에서 소개한 ‘오줌모노히도룩시페놀대사물검사시약’은 대신 무역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대신무역회사 실장 박사 지영혁이 나와서 암과 관련한 설명을 하면서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알고 보니 후원도 대신무역회사에서 하였다. 전문성이 높은 분야라 제작 자문도 받고 후원도 받아서 만들었다.

### 과학영화 <암성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본 암질병 예방과 치료

과학영화 <암성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조선기록과 학영화촬영소에서 2014년에 제작한 14분 길이의 과학영화로 암성질병에 대한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암을 조기에 치료하고 건강한 몸으로 강성국가를 만들자는 것을 주제로 한다.

<암성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북한의 보건의료 체제에 대한 선전과 자체적인 원료와 기술로 성공하였다고 평가하는 항암약 옥살린플라틴을 소개한다.

북한이 소개하는 암 예방 시스템은 이렇다. 북한은 예방의약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하는 집단 검진 체제를 세우고 있다. 암의 검진 사업은 진료소, 리인민병원의 호담당의사들이 담당한다. 호담당의사들은 각 세대원들에게 암검진지조사표를 배포하고 35세 이상이 주민들에게는 조사표에 자가 증상을 체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서 검진조사표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조사하여 의사협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협의회에서는 암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구역, 군, 시병원과 종양연구소에 보내어 혈액검사를 비롯한 암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암을 진단한다.

<암성질병의 예방과 치료>에서는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는 항암약 옥살린플라틴을 소개한다. 항암약으로 소개하는 옥살린플라틴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학과학교류소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항암약으로 암과 관련한 치료에 적용하는 치료약이다.

<암성질병의 예방과 치료>에서 선전하는 항암약 옥살린플라틴은 자체적인 원료와 기술로 성공한 세계적으로 공인된 안전규약조항을 만족시킨 항암약이라고 소개한다. 소화기 계통의 암, 비뇨기 계통의 암, 호흡기 계통의 암, 유선암, 뼈암 등의 여러 암에 적용할 수 있고, 치료 효율도 높다. 특히 전이성 직장암 및 결장암에 대한 치료 효과가 높다고 한다. 옥살린플라틴은 의학과학원 종양연구소 평양시 제1인민병원에서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과학영화에서 홍보영화로

북한에서 과학영화는 각종 과학에 대한 일반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과학영화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작에는 관련 기관의 후원을 받는다. 그런데 후원





과학영화 <암성질환의 예방과 치료>

하는 곳이 과학원이나 연구기관이 아닌 무역회사도 있다. 무역회사의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서인지 질병 관련 과학영화 중에는 약 광고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질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보여준 다음 예방약이나 치료약 또는 건강보조제로 만들어진 의약품을 보여준다. 과학영화를 보고 있으면 사야만 할 것 같다. 이 또한 김정은 시대의 달라진 양상이다. 2012년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기치로 내세운 김정은 체제는 구체적으로 과학,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에서 인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통해 인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문명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과학영화는 보건의료 분야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관련 의약품을 선전하는 양상이다.

<암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는 2014년에 제작하였고, <자체 검사에 의한 암조기 진단>는 2017년에 제작하였다. 3년의 차이를 두고 제작된 영화이지만 화질이나 그래픽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방송기술의 큰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WRITER

전영선은 한양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거례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이사,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 북조선인의 탄생 - 주체교육의 형성

김경옥 / 도서출판선인 / 2020. 8



1945년 분단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남과 북의 체제가 다르고 할지라도 인간성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분단의식도 그렇게 심화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은 한국전쟁을 통해서 서로 간에 적개심을 키우기는 했지만 민족성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즉 남과 북은 체제가 다를 뿐 사람마저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필자의 추측이다.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남북한의 정치사상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승만과 김일성이 대립하던 시기에 약간의 균열이 있던 남북한 사람들의 인간성은 김일성과 박정희가 대립하던 시기에 완전히 바뀌게 된다.

대한민국(한국인)과 북조선인으로 결정적으로 갈라진 시기가 바로 천리마시대다. 이 책은 남과 북의 영토의 분단, 사상의 분단, 체제의 분단을 넘어서서 결정적으로 인간이 분단된 시기를 연구했다. 남과 북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서로 다른 인간을 만들어 냈다. 한국인과 북조선인이 탄생한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분단된 상황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인간성(원형) 형성과정을 알게 되면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였다. 중립적 관찰자로서 북한 사람들에게 대해 북한 사람들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될 수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마저 갖게 되었다. 또한 이 책이 남과 북의 상호 만남과 이해, 평화적 교류와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바람도 갖게 되었다.

30여 년 교사와 작가 생활을 겸하여 시민기자 활동을 하다 지금은 강원도 원주 치악산 밑에서 글 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소설가 박도 선생의 75년 인생역정을 정리했다. 올해가 광복 75주년이므로 저자의 인생은 한국현대사와 그 궤적을 같이한다. 누구나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그는 교육자로서 혹은 작가라는 한 지식인으로서 살아온 자신의 한평생을 되돌아보고 있다. 화자이자 화상의 주체로서 그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지만 이 책은 자전소설이나 회상록이 아니다. 살아온 시대를 생생하게 증언하면서 근접 과거의 온전한 사회사 정립에 기여하고자 써어졌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장이나 미화보다는 좌절과 시행착오라는 좀 더 촘촘하고 내밀한 삶의 리얼리티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유년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가 1부, 전방소총소대장 시절의 이야기가 2부, 교단 일기가 3부, 그리고 작가와 근현대사 시민기자로서의 삶이 4부다. 한국 현대사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듯이 저자의 생애도 비슷한 궤적을 그려왔다. 이것은 비단 저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온 해방둥이들과 그 연배의 우리 윗세대(65세 이상 고령화세대)가 공통으로 겪어온 일이다. 그들은 고난과 역경에 좌절하거나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살아왔다. 그들의 경험과 체험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왔고 또 미래를 제시할 것이므로 우리는 그들의 삶의 노정을 기억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 어느 해방둥이의 삶과 꿈

박도 / 눈빛 / 2020. 8

## 선생님, 더불어 살려면 어떻게 해요?

정주진, 김규정 / 철수와영희 / 2020. 9



더불어 사는 게 무엇인지, 왜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 더불어 살려면 서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등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위해 꼭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을 다양한 주제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서 쉽게 알려준다.

사람들은 왜 처음 만나서 나이를 물어보는지, 학생은 공부를 잘 해야만 학교에서 대우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을 차별하면 왜 안 되는지, 왜 세금을 안 내는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써야 하는지, 나와 다르면 불편한데 왜 인정해야 하는지 등 어린이가 더불어 사는 것과 관련해 궁금해하거나 꼭 알아야 할 내용을 27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살펴본다.

책을 통해 저자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 덕분에 살아가기에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더불어 산다'는 말은 '함께 산다'는 것, 즉 공존을 의미하기에 단순히 같은 장소나 사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때로는 지지하고 도우면서 산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자기와 다른 사람을 쫓아내거나 꿈쩍하지 못하게 하려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힘이 없으면 공격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국적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투나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탈북민을 싫어하거나 장애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책은 우리 모두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따돌리고 공격하는 것은 안 되며, 열린 마음과 태도로 자신과 다른 생각, 주장, 취향, 모습, 말씨 등 서로 다른 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끄러운 어른들이 많은 지금, 어찌면 아이보다 우리가 먼저 읽어야 할 책은 아닐까.

유신의 서술이 여전히 시퍼런 1978년 출간되어 당대의 한국지성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이 올해로 출간 40년을 맞이했다. 해방 후 시대를 통일 의지가 담긴 '분단시대'라는 용어로 처음 명명한 강만길은 그의 첫 서문집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출간 이후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를 연구하는 한국사학자로서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고민하는 지식인으로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학문적, 실천적 행보를 보여주었다. 반공주의나 대북적대주의가 고착화되는 동시대를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극복해야 하는 '분단시대'라 이름 지은 것은 당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었다. 이는 이후 우리 사회의 일상용어와 학문용어로 정착하며 통일 지향의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분단사학의 반성과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사론 정립을 과제로 제기한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은 자신의 이론화 작업에 건인차가 되고, 1980년대 이후 인문·사회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강만길 저작집' 전 18권은 이 같은 강만길 사학을 집대성한 것이자 실천적 저술 활동의 전모를 오롯이 보여주는 책이다.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의 기획으로 긴 준비과정과 만 2년간의 편집 과정을 거쳐 출간된 '강만길 저작집'은 일제 식민사학의 정체후진성과 타율성론을 극복하고자 한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 연구부터 1930년대 좌우합작운동 등 통일민족국가 건설 운동에 관한 독보적 연구저작들과 한국근현대사 개설서, 통일 관련 대중 역사서와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저서 19권과 미간행 원고를 묶어 전 18권으로 구성하였다. 출간 당시 의도를 살려 원본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오늘의 독자를 배려한 편집체로 꾸었다. 원소에서 신진까지 한국근현대사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해 집필한 해제 20편은 40여 년에 걸친 저작들의 사학사적인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의미 있는 읽을거리이다.



##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 강만길 저작집 16

강만길 / 미디어창비 / 2020. 7



## 코로나 시대의 평화, 거리두기를 넘어서는 연대와 소통

• 이현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전문위원



일상이 멈췄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은 분단선 너머를 향한 이야기가 아닌 내 일상의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임을 깨달았다. ‘잠시 멈춤’과 ‘거리두기’가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유일한 길이었고, 이는 ‘나부터 실천’할 때 가능했다.

그런데 ‘잠시’가 꽤 길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상을 지킨 실천을 넘어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새로운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지키기’가 아닌 ‘만들기’가 필요하다면 이제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은 국민들이 거리 두기 실천을 넘어 성금을 모으고, 헌혈 기부를 하고, 마스크 만들기 봉사와 방역 활동에 동참했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일은 아직 안개속이다. 새로운 실천을 찾아야 한다.

### 일상의 평화를 지키는 실천과 생명공동체

한반도 평화는 어떨까.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거리두기를 한 남과 북은 어떤 실천을 하고 있을

까. 코로나19에 맞서 국경을 폐쇄하고 철저한 고립과 단절을 선택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 만들기’를 해나가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또한 아직 안개속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계기로 새삼 확인한 것은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환경파괴가 가져온 기후 위기는 올 여름 우리에게 54일 간의 장마라는 기록적인 날씨를 안겨줬고,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몰아넣었다. 지구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반도에 사는 남과 북이 거리두기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기나긴 장마에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열면서 연천과 파주의 저지대 주민들은 삶의 터전

을 버리고 대피해야 했다. 2019년 5월 북한에서 먼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그해 9월 우리 측 접경지역에도 퍼졌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축산업을 하는 농민의 삶이 위태로워졌고, 접경지역에 대한 출입과 관광까지 막히면서 지역경제도 함께 어려워졌다. 일부 탈북단체가 북으로 보낸 대북전단은 오히려 바람을 타고 의정부의 주택가 지붕에 떨어지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 거리를 두고 싶어도 남과 북은 바람과 물과 땅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생명공동체인 것이다. 지금의 거리두기가 '잠시' 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코로나 시대의 평화통일 소통법과 국민참여

나의 일상과 한반도 평화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바람으로, 물로, 땅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상의 평화를 만드는 '나부터 실천'과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실천을 함께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해야 할까. 북한이 핵을 쥐고 있고 북미대화가 중단되고, 남북관계마저 막혀있는 현실에 지치고 때로는 좌절도 하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의 숙명이 아닐까. 남북관계가 막혀 있을수록 우리 안에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인식은 싸늘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0년 2분기 여론조사 결과<sup>1</sup>를 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5.5%,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4%로 나오고 있다.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지만 이 수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

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었던 2017년 3분기의 71.4%보다도 낮은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도 '경계·적대 대상'(39.2%)이 '협력·지원대상'(37.6%)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와 남북관계의 악화 속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도 함께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 일상을 지킨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과 실천이었다.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일에도 국민의 자각과 공감의 있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내 일상의 평화와 연결되어 있고, 거리두기만으로는 언제든 나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자각과 공감의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국민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평화통일 활동이 '잠시 멈춤' 상태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맞는 평화통일 활동과 소통법을 만들며 국민과 함께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민화협은 우리 사회 내부의 대화와 소통에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실천해 왔다. 1998년 출범 당시부터 남북 화해 못지않게 남북화해를 주요 목표로 삼았고, 2000년 초에 '남남대화'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통일문제에 있어 우리사회의 소통과 통합을 위해 힘써왔다.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는 역할도 했다. 앞서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민과 함께하는'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평화통일 운동을 만드는 일도 민화협이 앞서 실천해 주면 좋겠다. 그 실천을 통해 거리두기를 넘어서는 코로나 시대의 연대와 소통이 우리사회 안에서, 그리고 남북 사이에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

### WRITER

이현희는 1998년부터 민화협에서 20년 가까이 일했고, 현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sup>1</sup>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평통 홈페이지(www.nuac.go.kr) 내 '정보자료마당'을 통해 볼 수 있다.



##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의 유쾌한 실험

•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국장

사람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아니, 솔직히 말해보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다만 우리 스스로 그동안 한없는 자만에 빠져있었을 뿐이다.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 상황에 접어든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은 어찌면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다시 일깨워주려는 자연의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

자그마한 희망과 이내 다시 찾아오는 절망 사이를 오가며 지금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분투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 끝은 오리라는 믿음, 그리고 그 누구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와중에 타인에 대한 증오와 차별, 배제는 하나도 도움 되지 않는다. 기나긴 싸움이 이어지며 모두 지치고 힘들지만, 한 광고의 문구처럼 우린 ‘끝내 승리하리라’고 믿고 싶다.

### • **코로나가 전해준 뜻밖의 시간들**

다소 안정되나 싶었던 코로나 상황이 ‘2차 대유행’이라는 파고로 덮쳐오고 있다. 그리고 그 파고를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역시 피해갈 수 없었다. 그동안 방역에 온 힘을 집중하며 소규모 대면 행사를 치러 왔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며,

열심히 준비했던 <제주 하계 평화워크숍>은 끝내 열릴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 특강도 3차를 끝으로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바쁜 일정에도 열심히 행사에 참여해준 기자단 친구들은 물론, 행사준비로 고생한 팀원들에게도 미안할 뿐이었다. 지금의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남은 시기 행사들을 전부 포기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가져다준 예상 밖의 일들도 있었다. 특히 <독서토론>을 맨 앞으로 꼽고 싶다. 6월 말 시작해 9월 초 현재 3회까지 진행된 <독서토론>은 10명 내외의 기자단이 선정 도서를 읽고, 각 파트를 정해 발표문을 제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문화인류학자가 바라본 북한(고난과 웃음의 나라-정병호)과 최초의 미국인 출신 평양 유학생의 이야기(시 유 어게인 in 평양-트래비스 제퍼슨),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기행(우리에겐 기억할 것이 있다-박래균)까지, 비교적 접근하기 편한 책들로 토론을 이어갔다. 물론 토론에 참여하는 기자단의 모습은 매우 진지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성실한 발표문을 작성해 제출했고, 토론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기자들은 감상문을 별도로 제출해 책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들 중 각 토론별로 하나씩 발표문을 요약해 이번 <민족화해 106호>에 담았다.

사실 <독서토론>은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성격의 모임이다. 자칫 산만해지기 쉽고,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참가자들도 시간이 늘어지면 지루해할 수 있다. 때문에 5명에서 10명 미만 정도가 적절하다. 발표과 토론에 넉넉히 시간을 안배할 수 있고, 특히나! 현 상황에서 인원이 20명 이상 모이게 되면, 그것도 난감해진다. 코로나 이전이었음 쉽사리 갖지 못했을 모임이었다.

현재까지는 주로 민화협에서 도서를 선정해 토론을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자단의 추천을 적극 반영해 도서를 선정할 예정이다. 남북관계, 통일문제에 대해 이제 막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들을 감안해, 비교적 읽기 편한 도서들로 선정했는데, 3회를 진행하며 우리가 기자단을 본의 아니게 과소평가했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이 분야의 초심자(!)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미안하고도 대견했다.

● **‘정답’이 아닌 ‘이해’를 위해**

토론을 위한 도서 선정 기준은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닌 ‘이해’를 넓히려는 데 있었다. 즉 남북관계나 북한 문제, 혹은 우리 현대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저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참석자들의 생각을 나누자는 것이다. 사실 남북문제, 통일, 역사 문제에 있어 ‘정답’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우리 사회에 이미 넘치도록 많다. 저마다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자신의 생각을 철저히 고집한다.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른 이들에 대한 조롱과 적대심을 숨기지 않는다. ‘넌 왜 자명한 사실을 모르는 것이냐?’, ‘내 이야기가 100% 사실이고, 너의 주장은 100% 오류다’ 등 오직 저만 잘났다고 떠드는 유포퓌들이 넘쳐나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우리 민화협 청년기자단까지 합세할 필요는 없다. 이들은 다양한 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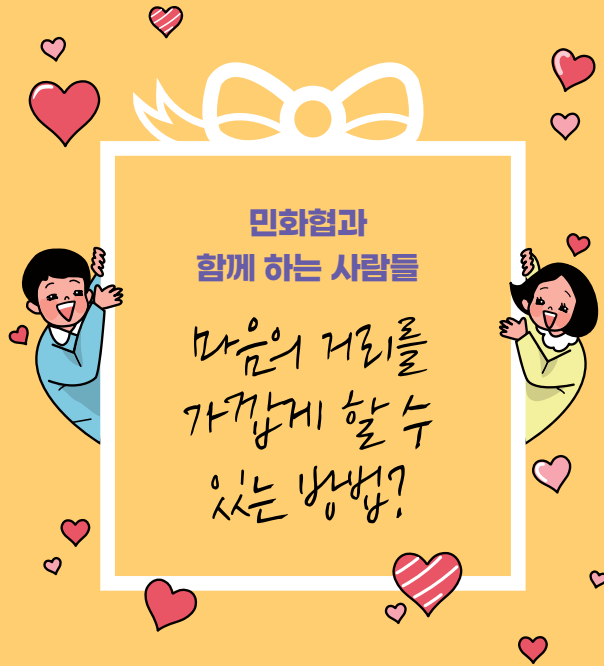
기들을 접하고 다양한 고민을 할 권리가 있다. 벌써, 맞는지도 모르는 ‘정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가 필요한 청춘인 것이다.

간혹 마치 세상 진리를 혼자 다 아는 양 이야기하는 ‘애늬은이’들을 본다. 물론 본인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여 일정한 사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칭찬할 일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른 바 ‘꼰대’처럼 구는 것은 곁에서 지켜보기 괴롭다. 때문에 적어도 우리 민화협 청년기자단은 더 많은 경험과 사유를 전해주고 싶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였다. 기자들은 책에 담긴 내용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평가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느낀 부분들은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민화협이 원하던 모습이었다. 당연히 각 저자들의 이야기가 진리일 수는 없다. 오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장했을 수도 있다. 또한 참석한 기자들의 평가가 100% 맞다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이 시간들을 통해 민화협 청년기자단들은 보다 성숙하고 보다 지혜로운 이들이 될 것이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수많은 변화 속에, 민화협 1020 통일공감기자단의 유쾌한 실험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면 하는 즐거운 변화다. 🌊

S P O N S O R



코로나 시대를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의 땀과 눈물이었다. 그중 특히 '돌봄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주목받은 바 있다. 전국적으로 간병사는 20만 명, 요양보호사는 4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중고령 여성들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의 노동은 여전히 제대로 보상받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봄 노동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긴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말한다.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돌봄 노동이라고. 참고로 요양보호사의 94.7%는 여성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58.9세, 평균인금은 107.6만 원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연일 대량 확진자가 발생하는 지금,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도 어렵는데 다시 대규모 경제 침체가

일어날 수 있어 매우 두렵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봄 노동자'들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우리는 코로나의 첫 파고를 상대적으로 무난히 넘길 수 있었고, 'K-방역'이란 찬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과 멀어지면, 다가오고 있는 더 큰 파고를 막아낼 수 없다.

민화협의 신임 대표상임의장이 취임했다. 여전히 어려운 남북관계 속, 국내 최대 통일운동협의체로서 민화협이 중심을 잡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민화협에게 후원자들의 성원이 든든한 힘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원의 뜻을 무겁게 가슴에 새기고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한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용태	김창석	송재희	이성희	정기섭
강준원	김충배	신경호	이 수	정병문
강춘근	김태우	신소영	이수미	정영태
강희설	김한신	신안천일염유통사업단	이승렬	정재호
권재석	김효은	신지윤	이승방	정종렬
김경자	노일환	신희중	이시중	정현곤
김대용	라방인	안광범	이우영	정현숙
김도래	마형석	안정식	이운식	조남훈
김동선	박 도	양무진	이은정	조순열
김병태	박상규	여혜숙	이점호	조한범
김사원	박성준	옥순종	이주희	주종훈
김상훈	박세훈	원희복	이진용	채기영
김서현	박영자	유동균	이한설	최기형
김석진	박완수	유영수	이형준	최지영
김선화	박인휘	유영초	이휘남	최진욱
김성경	박찬석	유정길	이희숙	최현선
김성권	박해승	유준상	임광수	편무석
김성민	박현용	유진우	임종성	홍순직
김성현	박현주	유택관	임채상	홍윤희
김영민	박현택	윤기홍	장환빈	황은숙
김영철	백영숙	윤은주	장흥석	황재욱
김용현	서대임	윤창우	전갑길	황정선
김은봉	서정성	윤혜숙	전미정	(사)기쁜소식
김일용	서정호	이근희	전영선	
김임식	설 훈	이민철	정광일	
김재용	성기영	이상준	정구연	
김재철	손병휘	이성도	정근영	

**민화협 사서함은 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5호의 정답은 '임은조'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주소를 명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선정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권두 인터뷰-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 김은준 서울 강동구**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해법으로, 민족·화해·협력 차원에서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여전히 멀기만 해 보이는 통일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종전상태가 아닌 정전상태로 종전을 통해 전쟁을 다시 하지 말자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면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 평화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남남, 남북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 화해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난을 복수로 갚지 않고, 극복하면서 더 큰 그림으로 해결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할 시기입니다.



**특별기고-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이렇게 하자! + 오은경 부산 연제구**

우리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30년 만에 대폭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 자율성과 개방성 확대를 설정했지만, 여전히 국가가 충분히 관여해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시급하게 개정하기보다는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꼭!' 이뤄질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법으로 재탄생하길 바랍니다.



**통일을 일구는 사람들-고유한 통일연구원장 + 변금형 경기 고양시**

씀쓸하게 읽었습니다. 한반도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시기에 취임하셔서 사명감이 크실 텐데,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처럼 냉정하게 4·27판문점선언과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되새겨야 합니다. 'K-모델'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능력은 K-방역, K-팝 등 주요 분야에서 세계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K-평화'만 이루면 K-모델이 완성됩니다. 민화협이 민족의 화해·통일·번영을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응원합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전후석 다큐 <헤로니모> 감독 + 최은순 전북 남원시**

다큐멘터리 <헤로니모> 전후석 감독님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때, 코리아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헤로니모 임과 쿠바 한인들의 이주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헤로니모>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담론을 던져주는 작품으로 우리 일상에서 한번은 마주칠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소수를 향한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뒤따랐습니다. 저도 <헤로니모>를 보면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위한 한반도 뉴딜-정대진 + 이창준 인천 연수구**

코로나 이후 얽힌 데 댈친 격으로 전개 중인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4대 군사행동계획 예고 등으로 위기의 최고조로 치달고 있는 남북관계가 언제 정점을 찍고 하강국면을 그리며 완만한 속도의 주행으로 나아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북측이 던진 공을 계속 맞기보다는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전환의 노력과 의지가 중요한 때입니다. 슬기롭게 위기를 잘 대처해나가면서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 PC와 스마트폰에서 <민족화해>를 만나보세요



<민족화해>는 민화협의 생생한 소식과 남북 이슈, 퀴즈 그리고 독자 참여까지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QR코드만 스캔하면 민화협 소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족화해 E-Book



민화협 블로그



민화협 페이스북



민화협 홈페이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마을기업 #마을경제 #보성리



#마을기업 #주민일자리 #서광리



#마을기업 #청년농부 #알뜨르



#투자기업 연계 전문가 인재 양성



#JDC #제주를 위한 특별한 기업



#첨단입주기업 고용창출 #IT BT



#첨단과학단지 지역 경제 활성화



#JDC면세점 #수익전액 환원



#자연보전 #곶자왈도립공원



# 제주를 위한 특별한

제주의 자연 · 문화 · 인재

지역 상생과 도민 행복을 위해 제주의 가치를 키워가겠습니다

제주 미래가치 창출 글로벌 선도기업 JDC

JDC는 제주의 가치창출을 통해 성장과 공존이 조화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공기업입니다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enter